BARUN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Peter Singer, Ethics in the Real World · Vol. 7 POLITICS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Why Vote? · Is Citizenship a Right? · Should We Honor Racists?
원서 PDF 160~163 · 168~170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6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권은 한 가지를 묻는다 — "시민의 의무와 권리는 어디까지이며, 우리는 누구를 기려야 하는가."

이 권은 시민이 지는 의무와 누리는 권리, 그리고 공동체가 누구를 기리는가를 묻는 세 편을 묶었다. 「Why Vote?」에서 저자는 한 표가 결과를 정할 가능성이 아주 작아 투표가 비합리적으로 보이더라도 많은 사람이 투표하지 않으면 소수가 나라의 미래를 정할 수 있다고 보고, 무임승차 문제를 극복하는 한 방법으로 오스트레일리아의 의무 투표를 소개한다. 「Is Citizenship a Right?」는 영국 정부가 시민권을 박탈해 무국적자가 된 사크르의 사례에서 출발해 개인의 권리와 공공선의 균형을 따진 뒤, 재판 없이는 시민권을 박탈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고 본다. 「Should We Honor Racists?」는 프린스턴 대학의 학생 항의와 윌슨이라는 이름을 둘러싼 논쟁을 다루며, 그의 공헌을 지우지 말고 업적과 인종차별을 함께 담는 섬세한 대화 속에서 기억하자고 말한다. 세 편 모두 실존 인물과 정치 사건을 다루므로 이 노트는 누구의 말인지 원서대로 가려 적었고, 어느 정치적 입장도 권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원서를 옆에 펴고 네 눈으로 먼저 찾아 기호로 표시한 뒤, 그 자리를 고른 까닭을 한 줄로 꼭 적어 두어라.

학교		학년·반		이름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세 편을 잇는 자리)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은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으로 표시합니다. 에세이 제목은 단락으로 세지 않습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권의 세 편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윌슨의 공헌은 지우지 말고 업적과 인종차별을 함께 담는 섬세한 대화 속에서(169쪽 ¶7 ~ 170쪽 ¶1) / 세계 시민권이 없는 지금은 재판 없이 박탈하지 않는 원칙이 최선일 수도(163쪽 ¶5) / 이중 국적이 없어 무국적자가 된 사크르(162쪽 ¶3~¶4) / 의무 투표 = 무임승차 문제를 극복하는 한 방법(161쪽 ¶7)
4~5	**밑줄 함축 의미**	get a free ride / a discontented majority / cheer their team on / a social norm of voting / "a privilege, not a right"(메이의 말) / more sinister possibility / leaving at large / a grave injustice / sets a precedent / political veils / the symbol can develop a different meaning / ceases to embody / a nuanced conversation
6	지칭 추론	His · he · his가 윌슨, them이 그가 물려받은 흑인 직원들을 가리키는 168쪽 ¶3~¶4 / they(160쪽 ¶4 · 161쪽 ¶6 = 유권자) · it(160쪽 ¶4 = 무효표 비율) / him · his(162쪽 ¶3~¶4 = 사크르) · they(162쪽 ¶5 = 외국 군대에 들어간 사람들) / this course(163쪽 ¶2 = 시민권 박탈) · They(170쪽 ¶1 = 윌슨의 공헌)
7~8	내용 일치·불일치	적어도 95% · 2020 · 62% · 1960 · 40% 미만 · 1920년대 · 60% · 70% · 1%(160쪽 ¶1~¶3) / 2005 · 40% · 600만 · 3,000만 · 54%(161쪽 ¶1~¶2) / 1918 · 2005 · 175 · 1961 · 20번 중 19번 · 2013 · 52(162~163쪽) / 2015 · 1913 · 노벨 평화상 · 총장 · 14개조 · 1920~1936 · 팔레 윌슨 · 1948 · 7년 · 2020(168~170쪽)
9~10	**어법**	have voted + since · contrast with · 계속적 where · fewer than · bother to V · 삽입절 polls show · what절 주어 · not A but B · have + O + p.p. · prevent + O + -ing · nowhere near -ing · 동격 that · 대동사 has · make + O + 원형 · 분사구문 leaving · those eligible · with + O + 분사 · each of us + 단수 · 가정법 과거 · of such importance that · strip A of B · apparently · render + O + 형용사 · Arguably · for which · 강조의 does · Should 도치 · be unable to V · prefer A to B · emerge(자동사) · vow not to V · requirement that + 원형 · insist that + 원형 · 과거완료 수동 · have only to V · no worse than · name A after B · cease to V · It was not until ~ that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compulsory ↔ voluntary · valid ↔ invalid · offsetting(160쪽 ¶4) · minuscule ↔ enormous · irrational ↔ rational · robust ↔ fragile · revoke ↔ grant · disclose ↔ conceal · sinister ↔ benign · jeopardize ↔ protect · reactionary ↔ progressive · segregated ↔ integrated · demote ↔ promote · salient ↔ inconspicuous · nuanced ↔ simplistic
12	빈칸 추론	a minority of the population can determine a country's future, leaving a discontented majority(160쪽 ¶7 ~ 161쪽 첫 줄) / the likelihood that my vote would decide the outcome(160쪽 ¶6) / to keep democracy robust(161쪽 ¶4) / not to be revoked without a judicial hearing(163쪽 ¶5) / the symbol can develop a different meaning(169쪽 ¶6)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문장 삽입	미국과의 비교(162쪽 ¶5): 한정된 사유 → 신청 사기 · 외국 군대 복무 → Arguably 테러 조직 가담이 더 나쁠 수도 → 민간인을 노릴 가능성 → But one important difference(외국 군대 복무자는 아마 그 나라 시민) → no such ties
14	무관한 문장	투표하는 여러 이유와 의무 투표(161쪽 ¶5~¶7)에 다른 편의 사실(2005년 런던 폭탄 공격 전까지 거의 쓰이지 않은 영국의 시민권 박탈 권한, 162쪽 ¶2) 끼워 넣기
15	순서 배열	폴란드의 예(161쪽 ¶1~¶3): 2005 · 겨우 40%(자유선거 이래 최저) → As a result 카친스키 총리(600만 표) → 2년 뒤 불참자의 불만 → 54% 가까이 · 정부 참패
16	요약문 완성	권리와 공공선(163쪽 ¶3~¶4): 20번 중 19번 옳아도 무고한 귀화 시민 한 명이 무국적자 = 중대한 불의 · 52명이 죽는 공격 앞에서 권리가 절대적이라고 고집하기 어려움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숫자 · 연대 · 연도 · 도시 · 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많다 – 18세 · 적어도 95% · 2020 · 62% · 1960 · 40% 미만 · 1920년대 · 60% · 70% · 1% · 2005 · 40% · 600만 · 3,000만 · 2년 뒤 · 54%(1편) / 1918 · 2005 · 2021 · 175 · 1961 · 20번 중 19번 · 2013 · 52 · 4(2편) / 2015 · 1913 · 1920~1936 · 1948 · 7년 · 5년 가까이 · 2020(3편). 비슷한 숫자 쌍(두 편에 나오는 2005, 두 번 나오는 40%, 1918과 1913, 1920년대와 1920, 1948과 2015와 2020, 175와 52와 19)이 함정이다.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highest ↔ lowest, earlier ↔ later, did not hold dual nationality ↔ did, does not have the power ↔ has, not under serious challenge ↔ under serious challenge, should not be erased ↔ should be erased). '~인 듯'(apparently) · '아마'(presumably · perhaps) · '~라고 볼 여지'(Arguably) · '~라고 변호할 수도'(One might plead) · '~일 수도'(may)를 단정으로 바꾼 선지, 정부들의 대응 · 메이 · 흑인 정의 연맹 · 슬로터 · 윙고의 말을 저자(싱어)의 주장으로 바꾼 선지도 조심한다.

1-2. 구조도 – 「Why Vote? · Is Citizenship a Right? · Should We Honor Racists?」 (160~163 · 168~170쪽)

논증형 세 편. ① 사례(오스트레일리아의 투표율) → 제도(의무 투표) → 남는 물음(저자는 왜 투표하나) → 역설(투표는 비합리적으로 보임) → 반례(폴란드) → 무임승차 → 투표의 여러 이유 → 저자의 답. ② 물음 → 영국의 박탈과 사크르 → 미국과의 비교 → 쟁점(증거 없는 박탈) → 반론(정부들의 대응) → 더 큰 물음(권리와 공공선) → 저자의 결론. ③ 사례(프린스턴의 항의) → 윌슨의 두 얼굴 → 쟁점(결함 있는 위인을 계속 기릴까) → 정치적 베일과 변하는 상징 → 2020년의 결정 → 저자의 답. 핵심 축은 **무임승차 vs 투표의 사회 규범, 공공선 vs 개인의 권리, 지우기 vs 함께 기억하기.**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60 ¶1	사례	저자 = 오스트레일리아 시민 · 18세 이후 모든 연방 선거에서 투표 / 연방 선거 대부분에서 등록 유권자 투표율 적어도 95% · 미국 2020년 62% = 1960년 이후 최고 · 임기 중간의 의회 선거 = 대개 40% 미만
160 ¶2~¶3	제도	1920년대 투표율 60% 미만 → 의회가 투표를 의무화 · 진지한 폐지 시도 없음 · 약 70% 지지(여론 조사) / 불참자에게 편지 · 사유가 없으면 적은 벌금 · 벌금 대상 = 투표 자격자의 1% 미만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60 ¶4~¶5	의무의 실제	의무 = 유효표가 아니라 투표소에 가서 이름 확인 · 용지 넣기 · 비밀 투표라 빈 용지 · 욕설을 못 막음 · 무효표는 조금 많으나 투표율 차이를 상쇄 못 함 / 벨기에 · 아르헨티나가 더 먼저 · 라틴아메리카 · 제재와 집행은 다양
160 ¶6	남는 물음	미국에 살아 의무가 없던 때에도 투표 · 정당 선호로도 설명 안 됨 · 내 표가 결과를 정할 가능성 = 아주 작음(한 번도 그런 적 없음)
160 ¶7~161 첫 줄	역설	자발적 투표 + 한 표의 영향 극히 작음 → 아주 작은 비용도 투표를 비합리적으로 보이게 함 /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추론해 투표하지 않으면 소수가 나라의 미래를 정하고 불만인 다수가 남을 수 있음
161 ¶1~¶3	반례	폴란드 2005 = 겨우 40%(공산주의 뒤 자유선거 이래 최저) · 3,000만 유권자 중 600만 표로 카친스키 총리 / 2년 뒤 불참자의 불만이 드러남 · 54% 가까이(젊고 교육 수준 높은 층에서 특히) · 정부 참패
161 ¶4	무임승차	소수의 결정을 원치 않으면 높은 투표율을 바람 · 그러나 한 표의 몫이 작아 무임승차의 유혹 — 남들이 충분히 투표해 민주주의를 지켜 주기를 바람
161 ¶5~¶6	투표의 여러 이유	즐거움 · 시민적 의무감 · 축구 팬처럼 응원 · 불평할 자격 · 수백만 분의 1이라도 결과가 중요하다는 계산(저자가 든 가능한 이유 · might · may)
161 ¶7	저자의 답	그래도 투표소에 오지 않으면 의무 투표 = 무임승차 문제를 극복하는 한 방법 · 작은 비용 → 투표가 합리적 + 사회 규범 · 오스트레일리아 모델을 고려하는 편이 좋다
162 ¶1~¶2	물음 · 사례	정부가 시민권을 빼앗을 수 있어야 하나 / 영국 = 1918년부터 귀화 시민의 시민권 박탈 권한 · 2005년 런던 폭탄 공격 전까지 거의 안 씀 · 2021년 말까지 175명 · 메이 = '권리가 아니라 특권'(메이의 선언)
162 ¶3~¶4	사크르	대부분 이중 국적 · 사크르 = 아님 → 무국적 / 소말리아에서 항소 · 대법원(다른 사건) = 무국적자로 만들 권한 없음 · 위치 노출 걱정으로 항소 중단(apparently) · 드론 공격으로 사망 · 그 뒤 법 개정
162 ¶5	미국과의 비교	한정된 사유(신청 사기 · 외국 군대 복무) · 테러 조직 가담이 더 나쁘다고 볼 여지(Arguably) / 그러나 외국 군대 복무자는 아마 그 나라 시민이 될 수 있음 · 테러 조직은 그런 연결 없음
162 ¶6~163 ¶2	쟁점 · 반론	1961년 유엔 협약 = 증명되면 무국적 허용 · 영국 법 = 사법적 · 공개적 증명 요구 없음 · 증거 비공개 · 실수와 남용의 위험 / 공정한 항소 제도의 강력한 근거(저자) · 정보원 노출 · 안보 위협(정부들의 대응) / 박탈만으로는 용의자를 풀어 둔 문제가 그대로
163 ¶3~¶4	더 큰 물음	개인의 권리와 공공선의 균형 · 20번 중 19번 옳아도(가정) 무고한 귀화 시민이 무국적자 = 중대한 불의 / 19명 중 1명이 52명이 죽은 공격과 비슷한 테러를 저지른다면(가정) · 권리가 절대적이라 고집하기 어려움
163 ¶5	저자의 결론	훨씬 큰 해악은 무시 못 함 · 그러나 민주 정부의 박탈 = 권위주의 정권에 선례(옛 소련 · 브로드스키) · 세계 시민권이 없는 지금 = 재판 없이 박탈하지 않는 원칙이 최선일 수도(may)
168 ¶1~¶2	사례	2015년 가을 · 강의 중 학생들이 나감 · 흑인 정의 연맹의 항의 · 총장실 점거 · 세 요구 / 전국의 주목 = 윌슨 스쿨 · 칼리지 개명 · 벽화 철거 · 윌슨은 인종차별주의자(연맹의 말)
168 ¶3~169 ¶2	윌슨의 두 얼굴	국내 진보 · 외교 이상주의 / 흑인 정책 = 반동적(1913 · 분리 부활 · 강등 · '혜택') /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유일한 동문 · 프린스턴 총장 · 슬로터의 평가(perhaps) · 14개조 · 바르샤바 · 프라하 · 국제연맹 · 팔레 윌슨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69 ¶3~¶4	쟁점	깊은 결함의 위인들 · 노예를 소유한 건국의 아버지들 · 시대 기준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변호(might) → 계속 기릴 근거인가(저자의 물음) · 뉴올리언스 교육위원회 = 아님 · 수도 이름도?(열린 물음)
169 ¶5~170 ¶1	저자의 답	정치적 베일(윙고) · 도덕 기준이 바뀌면 상징의 의미도 · 1948 · 로자 파크스는 7년 뒤 · 인종차별이 두드러짐 / 5년 가까이 유지 · 기념물 · 2020년 개명 / 공헌은 지우지 말고 업적과 인종차별을 함께 담는 섬세한 대화로 · 교육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투표의 합리성	한 표가 결과를 정할 가능성이 극히 낮으면 아주 작은 비용만으로도 투표는 비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추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추론해 투표하지 않으면 소수가 나라의 미래를 정하고 불만인 다수가 남을 수 있다(저자 · 폴란드의 예)
무임승차	자기는 투표하지 않으면서 남들이 충분히 투표해 민주주의를 지켜 주기를 바라는 유혹	의무 투표는 무임승차 문제를 극복하는 한 방법 – 투표하지 않는 데 작은 비용을 물리면 모두에게 투표가 합리적이 된다(저자)
낮은 투표율	투표율이 낮은 선거(예: 미국 2020년 62%가 1960년 이후 최고 · 임기 중간의 의회 선거는 대개 40% 미만)	투표율을 걱정하는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 모델을 고려하는 편이 좋다 – 투표의 사회 규범 · 모두가 투표하니 기꺼이 투표(저자)
박탈의 증거	영국 법 = 사법적 · 공개적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항소해도 근거 증거를 공개할 의무가 없음 → 실수와 남용의 위험	시민권 박탈 결정을 충분하고 공정하게 재검토하는 항소 제도를 둘 강력한 근거가 있다(저자)
박탈이라는 수단	공개 증거 없이 박탈할 수 있어 체포 · 재판보다 이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 정부	박탈만으로는 테러 용의자를 잡지 않고 풀어 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는 다른 곳에서 공격할 수도 있다(저자)
무고한 한 사람	테러 연루 의심에 기대어 시민권을 박탈하는 결정(정부가 20번 중 19번 옳다고 가정)	그래도 무고한 귀화 시민 한 명이 무국적자가 될 가능성은 높고, 그것은 중대한 불의다(저자)
민주 정부의 박탈	민주 정부가 시민권을 박탈해 사람들을 무국적자로 만들기 시작함	반체제 인사를 추방하려는 권위주의 정권에 선례가 된다 → 세계 시민권이 없는 지금은 재판 없이 박탈하지 않는 원칙이 최선일 수도(저자, may)
윌슨의 공헌	역사에서 지우기	지울 수도, 지워서도 안 된다 – 업적과 인종차별 정책 · 관행에 보탠 몫을 함께 담아 가치의 변화에 관한 섬세한 대화 속에서 인정한다(저자)
1948년과 지금	윌슨의 이름이 붙은 1948년 = 로자 파크스의 버스 승차는 7년 뒤 · 남부의 인종 분리에 심각한 도전이 없던 때	지금은 그런 분리를 상상할 수 없으니 윌슨의 인종차별이 더 두드러지고, 오늘의 프린스턴이 중시하는 가치를 더는 구현하지 못한다(저자)
대화의 결과	그런 대화가 없으면 대학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 지닌 복잡성을 모르고 지날 학생과 교수	그 섬세한 대화가 낳을 결과 하나는 그들을 교육하는 일이어야 한다(저자)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Australia · 95%	저자 = 오스트레일리아 시민 · **18세** 이후 모든 연방 선거에서 투표 · 연방 선거 대부분의 등록 유권자 투표율 = **적어도 95%**
United States · 62% · 40%	**2020년** 투표율 **62%** = **1960년** 이후 **최고** · 대통령 임기 중간의 의회 선거 = 대개 투표 자격자의 **40% 미만**
1920s · 60% · 70% · 1%	투표율이 **60%** 아래로 떨어진 **1920년대**에 의회가 투표를 의무화 · 약 **70%**가 지지(여론 조사) · 불참자 = 까닭을 묻는 편지 · 사유(병 · 해외여행)가 없으면 적은 벌금 · 벌금 대상 = 투표 자격자의 **1% 미만**
의무의 내용	유효표가 **아니라** 투표소에 가서 이름을 확인받고 용지를 함에 넣는 것 · 비밀 투표라 빈 용지 · 욕설을 막을 수 없음 · 무효표는 조금 더 많지만 투표율 차이를 상쇄하지 못함
Belgium · Argentina	오스트레일리아**보다 먼저** 의무 투표 도입 ·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도 시행 · 제재와 집행은 나라마다 다름
Poland 2005	투표 자격자의 겨우 **40%** 투표 = 공산주의 시기 뒤 자유선거 이래 **최저** ·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총리(과반 의석의 정당 연합) · 투표 자격자 **3,000만** 명 중 **600만** 표
Poland · 2년 뒤	다시 투표 → 2005년 불참자 다수가 결과에 불만이었음이 분명 · 투표율 **54%** **가까이**(젊고 교육 수준 높은 유권자에서 특히 증가) · 카친스키 정부 **참패**
free-rider problem	한 표의 몫이 작아 투표하지 않고 남들의 투표에 기대려는 유혹 · 의무 투표 = 이를 극복하는 **한** 방법 · 투표의 여러 이유 = 즐거움 · **시민적 의무감** · **축구 팬**처럼 응원 · 불평할 자격 · **수백만 분의** 1이라도 결과가 중요
UK · 1918 · 2005 · 175	**1918년**부터 귀화 영국인의 시민권 박탈 권한 · **2005년** 런던 교통망 폭탄 공격 전까지 거의 안 씀 · 그때부터 **2021년 말**까지 **175명**(국가 안보) · 테리사 메이(당시 **내무장관**) = 시민권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메이의 선언)
Mohamed Sakr	**이중 국적 아님** · 부모는 **이집트**에서 왔으나 이집트 시민 아님 → **무국적** · **소말리아**에서 항소 · 휴대전화 위치 노출 걱정으로 그만둔 **듯**(apparently) · 몇 달 뒤 **미국 드론 공격**으로 사망
UK Supreme Court · 법 개정	**그 뒤 다른 사건**에서 정부에 사람을 무국적자로 만들 권한이 없다고 판결 / 그 뒤 법 개정 = 내무장관은 박탈이 그 사람을 무국적자로 만들지 않는다는 **합리적 믿음**이 있어야 함
US citizenship	**한정된** 사유로만 박탈 = 시민권 신청 때의 **사기** · 다른 나라 **군대** 복무 · 외국 군대 복무자는 **아마**(presumably) 그 나라 시민이 될 수 있음 · 테러 조직 = 그런 연결 없음
1961 UN Convention	무국적 감축에 관한 유엔 협약 · 영국 = **서명국** · 나라의 핵심 이익을 해친 것이 **증명되면** 무국적 선언 허용 / 영국 법 = 더 약한 주장조차 증명을 요구하지 않음
19 out of 20 · 2013 · 52	정부가 **20번 중 19번** 옳다고 가정 · **2013년** 결정이 그렇다 해도 무고한 귀화 시민이 무국적자가 될 가능성 높음 = **중대한 불의** / 런던 폭탄 공격 = 무고한 **52명** 사망(폭탄 공격범 **4명**도 사망)
Joseph Brodsky	시인 · **뒷날** 노벨상 수상자 · **옛 소련**이 추방(반체제 인사 추방의 한 예 · 그 밖에도 많음)
2015 · Black Justice League	**2015년 가을** 저자의 실천 윤리학 강의 중 학생들이 나감 · 비무장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경찰에게 살해된 일에 대응해 생긴 학생 단체 · **크리스토퍼 아이스그루버** 총장의 집무실을 점거
연맹의 요구	**문화 역량 교육** · 소외된 사람들의 역사 수업 의무 · **문화 친화 공간** / 전국의 주목 = 윌슨 스쿨 · 윌슨 칼리지 **개명** · 식당 **벽화** 철거
Woodrow Wilson	아동 노동 금지 · 노동자 권리 · 은행법 개혁 · 독점에 맞섬 / **1913년** 대통령 · 분리 일터 · 화장실 부활(남북전쟁 끝에 폐지됐던) · 흑인 관리자 강등 ·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유일한** 동문 · 대통령 전 프린스턴 **총장**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Anne-Marie Slaughter	우드로 윌슨 스쿨의 **전 학장** · 윌슨이 **아마**(perhaps)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해 프린스턴을 위대한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바꿈(슬로터의 말)
Fourteen Points · League of Nations	민족 자치 · 독립 폴란드 · 공개 조약 · 무역 장벽 완화 · 국가들의 일반적 연합체 → **국제연맹**(유엔의 전신) · **1920~1936** 제네바 **팔레 윌슨** = 지금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본부 / 바르샤바 윌슨 광장 · 프라하 중앙역 · 프라하와 브라티슬라바의 윌슨 거리
Founding Fathers · New Orleans	노예를 소유한 건국의 아버지들 · 워싱턴 · 제퍼슨 · 매디슨 · 시대 기준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변호는 '할 **수도**'(might) / **뉴올리언스** 교육위원회 = 조지 워싱턴 초등학교 → 수혈의 분리 철폐를 위해 싸운 흑인 외과 의사의 이름
Ajume Wingo	『Veil Politics in Liberal Democratic States』 · **정치적 베일** = 정치 체제의 역사적 세부를 덮어 이상화된 얼굴을 만듦 · 지도자 = 시민의 덕을 심어 주는 상징의 수단
1948 · Rosa Parks	**1948년** 공공 · 국제 문제 스쿨에 윌슨의 이름 · 로자 파크스의 버스 승차는 **7년 뒤** · 남부의 분리에 심각한 도전 없음 →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음
2020 · George Floyd	항의 뒤 **5년 가까이** 이름 유지 · 스쿨 바깥에 인종차별을 인정하는 **기념물** /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살해 뒤 스쿨 이름이 부적절하다고 인정 · 칼리지에서도 이름을 뺌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thics in the Real World · Why Vote? · Is Citizenship a Right? · Should We Honor Racists? (원서 PDF 160~163 · 168~170쪽) · 6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7-1 사례와 제도 – 오스트레일리아의 높은 투표율과 의무 투표, 그래도 남는 물음 160쪽 ¶1 ~ ¶6

원문 위치 원서 160쪽 ¶1 ~ ¶6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60쪽 ¶1 첫 문장	I have voted in every federal election since I turned 18	저자의 사례 · 현재완료
★	160쪽 ¶1 셋째 문장	the turnout of registered voters is at least 95%	숫자 – 서답형
★	160쪽 ¶1 넷째 문장	the 62% turnout in 2020 was the highest since 1960	숫자 – 최고/최저 뒤집기
▲	160쪽 ¶1 넷째 문장	contrasts markedly with elections in the United States, where	계속적 where
★	160쪽 ¶1 다섯째 문장	usually fewer than 40% of eligible Americans bother to vote	중간선거 – 내용 일치
◆	160쪽 ¶2 첫 문장	There is a reason why so many Australians vote.	전환 – 제도 설명
★	160쪽 ¶2 둘째 문장	In the 1920s, when voter turnout fell below 60%, Parliament made voting compulsory	연대 · 숫자 – 서답형
▲	160쪽 ¶2 셋째 문장	the law, which polls show is supported by about 70% of the population	계속적 which + 삽입절
★	160쪽 ¶3 둘째 문장	the number fined is less than 1% of eligible voters	숫자 – 내용 일치
▲	160쪽 ¶4 첫 문장	what is compulsory is not casting a valid vote, but going to the polling place	what절 주어 · not A but B
▲	160쪽 ¶4 둘째 문장	makes it impossible to prevent people leaving their ballot papers blank	가목적어 it · prevent + O + -ing
●	160쪽 ¶4 셋째 문장	it comes nowhere near offsetting the difference in voter turnout	어휘 문항 – offsetting 자리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60쪽 ¶5 둘째 문장	Belgium and Argentina introduced it earlier	나라 · 선후 — 뒤집기 주의
◆	160쪽 ¶6 첫 문장	I wa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and so under no compulsion to vote	저자의 물음 — 빈칸 지문의 출발
◆	160쪽 ¶6 둘째 문장	the likelihood that my vote would decide the outcome of the election was minuscule	동격 that · 대동사 has

내용

오스트레일리아 시민인 저자는 열여덟 살이 된 뒤로 연방 선거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투표했다. 이는 드문 일이 아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선거 대부분에서 등록 유권자의 투표율은 적어도 95%다. 이 수치는 미국 선거와 뚜렷이 대조된다. 미국에서는 2020년의 투표율 62%가 1960년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었고,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르는 의회 선거에서는 대개 투표 자격이 있는 미국인 가운데 40%도 안 되는 사람만 굳이 투표하러 간다. 그토록 많은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 투표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투표율이 60% 아래로 떨어진 1920년대에 의회가 투표를 의무로 만든 것이다. 그 뒤 정치 성향이 서로 다른 여러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 법을 폐지하려는 진지한 시도는 없었고,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70%가 이 법을 지지한다. 투표하지 않은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은 그 까닭을 묻는 편지를 받는다. 병이나 해외여행처럼 받아들일 만한 사유가 없는 사람은 적은 벌금을 내야 하지만, 벌금을 무는 사람은 투표 자격이 있는 사람의 1%도 안 된다. 실제로 의무인 것은 유효한 표를 던지는 일이 아니라, 투표소에 가서 명부에서 자기 이름을 확인받고 투표용지를 함에 넣는 일이다. 비밀 투표이므로 투표용지를 빈칸으로 두거나, 원한다면 거기에 욕설을 써 넣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투표가 의무인 곳에서는 무효표 비율이 조금 더 높지만, 그것으로 투표율의 차이가 상쇄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의무 투표는 오스트레일리아만의 제도가 아니다. 벨기에와 아르헨티나가 더 먼저 도입했고,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도 시행한다. 다만 제재와 집행의 정도는 나라마다 다르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저자가 연방 선거마다 빠짐없이 투표한 까닭이 다 설명되지 않는다. 몇몇 선거 때 저자는 미국에 살고 있어서 투표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저자에게도 어느 정당이 오스트레일리아를 이끌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호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저자가 수고를 들여 투표한 까닭을 설명하지 못한다. 자기 표가 선거 결과를 결정할 가능성은 아주 작았기 때문이다(그리고 예상대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어법

- **As an Australian citizen, I have voted in every federal election since I turned 18.** : as = ~로서(자격의 전치사). have voted = 현재완료(계속) — since + 과거 시점(turned 18)과 함께 '그때부터 지금까지'. turn + 나이 = ~살이 되다.
- **That figure contrasts markedly with elections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62% turnout in 2020 was the highest since 1960.** : contrast with = ~와 대조를 이루다(자동사). where = 계속적 관계부사(선행사 the United States — 그런데 그곳에서는). the highest since 1960 = 1960년 이후 가장 높은(최상급 + since).
- **In congressional elections that fall in the middle of a president's term, usually fewer than 40% of eligible Americans bother to vote.** :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elections → 복수 fall). fall = (어떤 때에) 놓이다, 해당하다. fewer than = 셀 수 있는 명사의 수에 쓰는 비교. bother to V = 굳이 ~하다(수고를 들이다).
- **there has been no serious attempt to repeal the law, which polls show is supported by about 70% of the population** : there has been = 현재완료(Since then과 함께). to repeal = attempt를 꾸미는 to부정사. which = 계속적 관계대명사로 is supported의 주어 — 사이에 polls show가 끼어든 구조(the law, which [polls show] is supported ...).

- **In practice, what is compulsory is not casting a valid vote, but going to the polling place, having one's name checked off, and putting a ballot paper in the box.** : what is compulsory = 관계대명사 what절 주어 → 단수 동사 is. not A but B — A · B 자리에 동명사(casting / going · having · putting). have + O + p.p.(having one's name checked off = 이름을 확인받기).
- **The secrecy of the ballot makes it impossible to prevent people leaving their ballot papers blank or, if they prefer, writing obscenities on them.** : make + 가목적어 it + 형용사 + 진목적어 to V. prevent + O + (from) -ing — 여기서는 from 없이 동명사. leave + O + 형용사 보어(blank). leaving과 writing이 or로 병렬, 사이에 if they prefer 삽입.
- **While the percentage of invalid votes is a little higher where voting is compulsory, it comes nowhere near offsetting the difference in voter turnout.** : While = ~이긴 하지만(양보). where = ~하는 곳에서(장소의 부사절). come near + -ing = 거의 ~하다 → nowhere near = 전혀 ~하지 못하다. it = 무효표 비율.
- **since the likelihood that my vote would decide the outcome of the election was minuscule (and, predictably, it never has)** : since = 이유의 접속사. that = 동격 접속사(the likelihood의 내용). 주어 the likelihood(단수) → was. it never has = it has never decided the outcome(반복되는 decided the outcome을 생략한 대동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turnout	투표율, 참가자 수	attendance	—
registered	등록된	enrolled	unregistered
markedly	뚜렷이	noticeably	slightly
eligible	자격이 있는	qualified	ineligible
compulsory	의무적인, 강제의	mandatory	voluntary
complexion	성향, 성격	character	—
repeal	(법을) 폐지하다	abolish	enact
fine (n.)	벌금	penalty	—
valid	유효한	legitimate	invalid
obscenity	욕설, 외설스러운 말	profanity	—
offset	상쇄하다	counterbalance	—
sanction	제재	penalty	reward
compulsion	강제, 의무	obligation	choice
minuscule	아주 작은	tiny	enormous

내용 일치 저자 = 오스트레일리아 시민 · 18세 이후 모든 연방 선거에서 투표 · 드문 일 아님 · 등록 유권자 투표율 = 적어도 95% · 미국 2020년 62% = 1960년 이후 '최고' · 임기 중간의 의회 선거 = 대개 40% 미만 · 1920년대 투표율 60% 미만 → 의회가 의무화 · 그 뒤 진지한 폐지 시도 없음 · 약 70% 지지(여론 조사) · 불참자 = 까닭을 묻는 편지 · 사유(병 · 해외여행)가 없으면 적은 벌금 · 벌금 대상 = 투표 자격자의 1% 미만 · 의무 = 유효표가 아니라 투표소에 가서 이름 확인 · 용지를 함에 넣기 · 비밀 투표 → 빈 용지 · 욕설을 못 막음 · 무효표는 조금 더 많으나 투표율 차이를 상쇄하기엔 턱없이 모자람 · 벨기에 · 아르헨티나가 더 '먼저' · 라틴아메리카 · 제재와 집행은 나라마다 다름 · 미국에 살 때는 의무 없었음 · 한 표가 결과를 정할 가능성 = 아주 작음(한 번도 그런 적 없음). **지칭** 160쪽 ¶1 That figure = 오스트레일리아의 95% 투표율 · where = 미국 / ¶2 the law = 의무 투표법 · which = 그 법 / ¶3 asking why = 왜 투표하지 않았는지 / ¶4 them(writing obscenities on them) = 투표용지 · it

comes nowhere near = 무효표 비율 / ¶5 it = 의무 투표 / ¶6 that isn't a full explanation의 that = 의무 투표 제도 · that also doesn't explain의 that = 저자의 정당 선호 · it never has = 저자의 표.

> **한 줄 요약** 오스트레일리아의 높은 투표율 뒤에는 1920년대에 생긴 의무 투표가 있지만, 미국에 살아 의무가 없던 때에도, 자기 한 표가 결과를 정할 가능성이 아주 작은데도 저자가 투표해 온 까닭은 아직 설명되지 않는다.

7-2 역설과 반례, 저자의 답 — 폴란드의 예, 무임승차와 의무 투표 160쪽 ¶7 ~ 161쪽 ¶7

원문 위치 원서 160쪽 ¶7 ~ 161쪽 ¶7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60쪽 ¶7 첫 문장	even the smallest cost … is sufficient to make voting seem irrational	역설 · 사역 make + O + 원형
★	160쪽 ¶7 둘째 문장 ~ 161쪽 첫 줄	a minority of the population can determine a country's future, leaving a discontented majority	빈칸 1순위 · 분사구문
★	161쪽 ¶1 둘째 문장	In the 2005 national elections in Poland, barely 40% of those eligible voted	연도 · 숫자 — 순서 배열
▲	161쪽 ¶1 둘째 문장	the lowest total since the advent of free elections after the communist period	최상급 + since · 동격 명사구
★	161쪽 ¶1 셋째 문장	despite receiving only six million votes, out of a total of 30 million eligible voters	숫자 — 내용 일치
▲	161쪽 ¶2 첫 문장	it became evident that many of those who had not voted in 2005 were unhappy	가주어 it · 과거완료
★	161쪽 ¶2 둘째 문장	Turnout rose to nearly 54%, with the increase especially marked among younger and better-educated voters	숫자 · with + O + 분사
★	161쪽 ¶3	Kaczyński's government suffered a heavy defeat.	순서의 끝 고리
◆	161쪽 ¶4 둘째 문장	each of us still faces the temptation to get a free ride	밑줄 의미 1순위
▲	161쪽 ¶4 둘째 문장	not bothering to vote while hoping that enough other people will vote to keep democracy robust	분사구문의 부정 · keep + O + 형용사
▲	161쪽 ¶5 둘째 문장	would have nothing better to do with the time saved if they did not	가정법 과거 · 과거분사 후치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61쪽 ¶5 셋째 문장	a sense of civic duty that does not assess the rationality of voting in terms of the possible impact	투표하는 까닭 – 무관한 문장 자리
●	161쪽 ¶6 첫 문장	like football fans, they want to cheer their team on	비유 – 밑줄 의미 오답 재료
▲	161쪽 ¶6 셋째 문장	the result is of such importance that even that tiny chance is enough to outweigh	of + 추상명사 · such ~ that
★	161쪽 ¶7 첫 문장	compulsory voting is one way of overcoming the free-rider problem	저자의 답 – 한 방법(one way)
◆	161쪽 ¶7 끝 세 문장	Australians want to be coerced into voting ... would do well to consider the Australian model	저자의 결론 · would do well to V

내용

투표가 자발적이고 결과가 한 사람의 표로 정해질 가능성이 극히 낮을 때에는, 아주 작은 비용만으로도 투표가 비합리적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 투표소까지 걸어가 줄을 서서 표를 던지는 데 드는 시간이 그런 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런 추론을 따라 투표하지 않으면, 인구의 소수가 나라의 미래를 정하고 불만을 품은 다수가 남게 될 수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예는 많다. 2005년 폴란드 총선에서는 투표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겨우 40%가 투표했다. 공산주의 시기가 끝나고 자유선거가 시작된 뒤 가장 낮은 수치였다. 그 결과 야로스와프 카친스키는 의회에서 과반의석을 얻은 정당 연합의 지지를 받아 총리가 될 수 있었다. 투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모두 3,000만 명인데 받은 표는 600만 표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불과 2년 뒤 폴란드 유권자들이 다시 투표하러 가야 했을 때, 2005년에 투표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많은 이가 그 결과에 불만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투표율은 54% 가까이로 올랐고, 특히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크게 늘었다. 카친스키 정부는 크게 패했다. 소수가 정부를 결정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높은 투표율을 바랄 것이다. 그러나 자기 한 표가 결과에 보태는 몫이 아주 작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여전히 무임승차의 유혹을 받는다. 자기는 굳이 투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투표해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지키고 시민 다수의 견해에 응답하는 정부를 뽑아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투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 투표를 즐기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은 투표하지 않아 아낀 시간에 그보다 나은 할 일도 없을 것이다. 자기 한 표가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 투표의 합리성을 따지지 않는 시민적 의무감에서 투표하는 사람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결과를 정하리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축구 팬처럼 자기 팀을 응원하고 싶어서 투표할지도 모른다. 투표하지 않으면 뽑힌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불평할 처지가 못 되기 때문에 투표할 수도 있다. 아니면 자기가 결과를 정할 가능성은 수백만 분의 1에 불과하지만, 결과가 워낙 중요해서 그 작은 가능성만으로도 투표의 사소한 불편을 넘어서기에 충분하다고 계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고려로도 사람들을 투표소로 이끌지 못한다면, 의무 투표는 무임승차 문제를 극복하는 한 방법이다. 투표하지 않는 데 작은 비용을 물리면 모두에게 투표가 합리적인 일이 되고, 동시에 투표라는 사회 규범이 세워진다. 저자는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이 투표를 강제받기를 원하며, 다른 모든 사람도 투표한다는 것을 알기에 기꺼이 투표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낮은 투표율을 걱정하는 나라라면 오스트레일리아 모델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짓는다.

어법

- even the smallest cost—for example, the time it takes to stroll down to the polling place, wait in line, and cast a ballot—is sufficient to make voting seem irrational : 주어 the smallest cost와 동사 is 사이에 대시로 예가

삽입. the time (that) it takes to V = ~하는 데 걸리는 시간. to 뒤 stroll · wait · cast 병렬. make + O + 원형(seem) = 사역동사. even + 최상급 = 가장 작은 ~조차.

- **Yet if many people follow this line of reasoning, and do not vote, a minority of the population can determine a country's future, leaving a discontented majority.** : if절 동사 follow와 do not vote 병렬. leaving = 결과의 분사구문(그리하여 ~을 남긴다). discontented = 불만을 품은(형용사).
- **In the 2005 national elections in Poland, barely 40% of those eligible voted, the lowest total since the advent of free elections after the communist period.** : those eligible = those (who were) eligible(형용사 후치). barely = 겨우(부정에 가까운 뜻). the lowest total ~ = 앞 절 내용(40%)을 다시 받는 동격 명사구. since the advent of = ~이 나타난 이후.
- **Turnout rose to nearly 54%, with the increase especially marked among younger and better-educated voters.** : rise to = ~까지 오르다(rise by = ~만큼). with + O + 분사 보어(marked) = 부대상황(증가가 두드러진 채로). nearly = 거의(54%에 조금 못 미침).
- **each of us still faces the temptation to get a free ride, not bothering to vote while hoping that enough other people will vote to keep democracy robust** : each of us + 단수 동사 faces. to get = temptation의 내용을 밝히는 to부정사. not bothering = 분사구문의 부정(not이 분사 앞). while + -ing = ~하면서. keep + O + 형용사(robust). to keep과 to elect가 목적으로 병렬.
- **Some people vote because they enjoy it, and would have nothing better to do with the time saved if they did not.** : would have … if they did not = 가정법 과거(실제로는 투표함). did not = did not vote(대동사). saved = the time을 꾸미는 과거분사 후치(아낀 시간). nothing better to do = -thing + 형용사 + to V.
- **the result is of such importance that even that tiny chance is enough to outweigh the minor inconveniences of voting** : of + 추상명사 = 형용사(of importance = important). such + 명사 + that = 너무 ~해서 …하다. be enough to V = ~하기에 충분하다. outweigh = ~보다 더 크다(무겁다).
- **The small cost imposed on not voting makes it rational for everyone to vote and at the same time establishes a social norm of voting.** : imposed on = The small cost를 꾸미는 과거분사 후치. on 뒤 동명사의 부정 not voting. make + 가목적어 it + 형용사 + for + 의미상 주어 + to V. 주어 cost(단수) → makes와 establishes 병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voluntary	자발적인	optional	compulsory
stroll	거닐다, 천천히 걷다	wander	—
irrational	비합리적인	unreasonable	rational
discontented	불만을 품은	dissatisfied	contented
advent	출현, 도래	arrival	—
coalition	(정당) 연합	alliance	—
evident	분명한	obvious	unclear
temptation	유혹	lure	—
robust	튼튼한, 굳건한	sturdy	fragile
responsive	응답하는, 반응하는	receptive	unresponsive
civic	시민의	—	—
outweigh	~보다 크다(무겁다)	exceed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nconvenience	불편	bother	convenience
coerce	강제하다	force	—

내용 일치 자발적 투표 · 한 표의 영향 극히 낮음 → 작은 비용(걷기 · 줄 서기 · 투표)도 투표를 비합리적으로 '보이게' 함 · 많은 사람이 그렇게 추론하면 소수가 미래를 정하고 불만인 다수가 남을 '수' 있음 · 폴란드 2005 = 겨우 40%(공산주의 뒤 자유선거 이래 최저) · 카친스키 총리 = 과반 의석의 정당 연합 · 3,000만 유권자 중 600만 표 · 2년 뒤 = 2005년 불참자 다수의 불만이 분명해짐 · 54% 가까이(젊고 교육 수준 높은 층에서 특히) · 정부 참패 · 무임승차의 유혹 · 투표의 여러 이유(즐거움 · 시민적 의무감 · 축구 팬처럼 응원 · 불평할 자격 · 수백만 분의 1이라도 결과가 중요) = 저자가 든 '가능한' 이유(might · may) · 의무 투표 = 무임승차 문제를 극복하는 '한' 방법 · 작은 비용 → 투표가 합리적 + 사회 규범 ·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은 강제받기를 원함(저자) · 오스트레일리아 모델을 고려하는 편이 좋다(would do well). **밑줄 의미** a discontented majority = 투표하지 않은 다수가 결과에 불만을 품고 남는다 / get a free ride = 자기는 투표하지 않고 남들의 투표가 지켜 주는 민주주의의 혜택만 누리려 한다 / cheer their team on = 결과를 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 쪽을 응원하려는 투표 / a social norm of voting = 모두가 투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됨 / 161쪽 ¶2 it became evident의 it = 가주어 · ¶6 they = 그 밖의 유권자들 · ¶7 They are happy to vote =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

> **한 줄 요약** 아주 작은 비용으로도 투표가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많은 사람이 투표하지 않으면 폴란드처럼 소수가 미래를 정할 수 있으므로, 저자는 투표하지 않는 데 작은 비용을 물려 무임승차 문제를 극복하는 의무 투표를 고려해 보라고 말한다.

7-3 물음과 사례 — 무국적자가 된 사크르, 미국과의 비교 162쪽 ¶1 ~ ¶5

원문 위치 원서 162쪽 ¶1 ~ ¶5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62쪽 ¶1	Should your government be able to take away your citizenship?	물음 — 제목과 맞물림
★	162쪽 ¶2 첫 문장	the legal authority to revoke naturalized Britons' citizenship since 1918	연도 — 서답형
▲	162쪽 ¶2 첫 문장	has had the legal authority … since 1918	현재완료 + since
★	162쪽 ¶2 둘째 문장	Until the terrorist bombings on the London transport system in 2005, this power was rarely exercised	연도 · 전환점 — 무관한 문장 재료
★	162쪽 ¶2 셋째 문장	revoked the citizenship of 175 people on national security grounds	숫자 — 서답형
◆	162쪽 ¶2 넷째 문장	Theresa May declared that citizenship is "a privilege, not a right."	인용 — 누구의 말인지 · 저자의 주장 아님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62쪽 ¶3 첫~둘째 문장	Most of those whose citizenship has been revoked held dual nationality. Mohamed Sakr, however, did not.	대조 — 제목
▲	162쪽 ¶3 넷째 문장	by stripping him of citizenship, the UK government made him stateless	strip A of B · make + O + 형용사
★	162쪽 ¶4 둘째 문장	the UK Supreme Court subsequently ruled in a different case that the government does not have the power	다른 사건 — 뒤집기 주의
◆	162쪽 ¶4 셋째 문장	apparently because he was concerned that the use of his cell phone was revealing his location	apparently — 단정 금지
★	162쪽 ¶4 넷째 문장	while still in Somalia, he was killed in an American drone attack	사건 — 내용 일치
▲	162쪽 ¶4 다섯째 문장	have a reasonable belief that this does not render the person stateless	동격 that · render + O + 형용사
★	162쪽 ¶5 첫 문장	only on limited grounds, such as fraud committed in the citizenship application or service in another country's military	미국의 박탈 사유 — 삽입
◆	162쪽 ¶5 둘째 문장	Arguably, joining a terrorist organization … is even worse than joining a foreign army	Arguably — 저자의 단서
★	162쪽 ¶5 셋째~넷째 문장	they can presumably become citizens of the country for which they are fighting … no such ties	주어진 문장 자리 — such ties

내용

정부가 우리의 시민권을 빼앗을 수 있어야 하는가? 영국 정부는 1918년부터 귀화한 영국인의 시민권을 박탈할 법적 권한을 지녀 왔다. 2005년 런던 교통망에서 테러 폭탄 공격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권한은 거의 쓰이지 않았다. 그때부터 2021년 말까지 영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175명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내무장관으로 일하던 테리사 메이는 시민권이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선언했다.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람 대부분은 이중 국적자였다. 그러나 모하메드 사크르는 그렇지 않았다. 그의 부모는 이집트에서 영국으로 왔지만, 그 자신은 이집트 시민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영국 정부는 그의 시민권을 박탈함으로써 그를 무국적자로 만들었다. 사크르는 살고 있던 소말리아에서 이 결정에 항소했다. 영국 대법원이 그 뒤 다른 사건에서 정부에는 사람을 무국적자로 만들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으니, 그의 항소는 승산이 컸다. 그런데도 사크르는 항소를 그만두었다. 휴대전화를 쓰면 자기 위치가 미국 정보기관에 드러난다고 걱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몇 달 뒤 그는 여전히 소말리아에 있다가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 뒤 영국 정부는 법을 고쳐, 내무장관이 누군가의 시민권을 박탈할 때에는 그 결정이 그 사람을 무국적자로 만들지 않는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정했다. 미국에서는 시민권 신청 때 저지른 사기나 다른 나라 군대에서의 복무처럼 한정된 사유로만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저자는 미국에 적대적인 테러 조직에 가담하는 것이 외국 군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말한다. 테러 조직이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다. 다른 나라 군대에 들어가 미국 시민권을 잃은 사람은 아마 자기가 위해 싸우는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테러 조직에는 대개 특정 정부와의 그런 연결이 없다.

어법

- **In the United Kingdom, the government has had the legal authority to revoke naturalized Britons' citizenship since 1918.** : has had = 현재완료(계속, since 1918). to revoke = authority를 꾸미는 to부정사. naturalized = 과거분사 전치(귀화한).
- **Until the terrorist bombings on the London transport system in 2005, this power was rarely exercised.** : until = ~까지(그때까지 이어진 상태). was rarely exercised = 수동 + 빈도 부사 rarely(거의 ~ 않다 — 부정의 뜻).
- **Most of those whose citizenship has been revoked held dual nationality. Mohamed Sakr, however, did not.** : those whose + 명사 = ~한 사람들(소유격 관계대명사). has been revoked = 현재완료 수동. did not = did not hold dual nationality(대동사 did).
- **Therefore, by stripping him of citizenship, the UK government made him stateless.** : by + 동명사 = ~함으로써. strip A of B = A에게서 B를 빼앗다(rob · deprive와 같은 꼴). make + O + 형용사 보어(stateless).
- **Nevertheless, Sakr discontinued his appeal, apparently because he was concerned that the use of his cell phone was revealing his location to US intelligence services.** : apparently = 보기에는 ~인 듯하다(확인된 사실이 아님). be concerned that = ~을 걱정하다. 주어 the use(단수) → was revealing(과거진행 — 그때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걱정).
- **the Home Secretary must, when revoking someone's citizenship, have a reasonable belief that this does not render the person stateless** : must와 have 사이에 when + -ing(접속사를 남긴 분사구문) 삽입. that = 동격 접속사(belief의 내용). render + O + 형용사 = O를 ~하게 만들다. this = 시민권 박탈.
- **Arguably, joining a terrorist organization hostile to the United States is even worse than joining a foreign army** : Arguably = ~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단정 아님). 동명사 주어 → 단수 is. hostile to ~ = organization을 뒤에서 꾸미는 형용사구. even + 비교급 = 훨씬 더.
- **they can presumably become citizens of the country for which they are fighting** : presumably = 아마(추정). for which = fight for the country의 for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they = 다른 나라 군대에 들어가 미국 시민권을 잃은 사람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revoke	취소하다, 박탈하다	withdraw	grant
naturalized	귀화한	—	native-born
exercise (v.)	(권한을) 행사하다	use	—
grounds	근거, 사유	reasons	—
privilege	특권	prerogative	—
dual	이중의	double	single
nationality	국적	citizenship	—
stateless	무국적의	—	—
appeal (v.)	항소하다	challenge	—
subsequently	그 뒤에	later	previously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discontinue	그만두다	stop	continue
amend	(법을) 고치다	revise	—
fraud	사기	deception	honesty
hostile	적대적인	antagonistic	friendly

내용 일치 1918년부터 귀화 영국인의 시민권 박탈 권한 · 2005년 런던 교통망 폭탄 공격 '전까지' 거의 안 씀 · 그때부터 2021년 말까지 175명(국가 안보) · 테리사 메이(당시 내무장관) = 시민권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메이의 선언 · 저자의 주장 아님) · 대부분 이중 국적 · 사크르 = 이중 국적 아님 · 부모는 이집트에서 왔으나 이집트 시민 아님 → 무국적 · 소말리아에서 항소 · 대법원 = '다른 사건'에서 정부에 무국적자로 만들 권한 없음(그 뒤) · 항소 중단 = 휴대전화 위치 노출 걱정 때문인 '듯'(apparently) · 몇 달 뒤 미국 드론 공격으로 사망 · 그 뒤 법 개정(무국적자가 되지 않는다는 합리적 믿음) · 미국 = 한정된 사유(신청 사기 · 외국 군대 복무) · 테러 조직 가담이 더 나쁘다고 볼 '여지'(Arguably) · 외국 군대 복무자 → '아마' 그 나라 시민 · 테러 조직 = 그런 연결 없음. **지칭** 162쪽 ¶2 this power = 귀화 영국인의 시민권을 박탈할 권한 · then = 2005년 런던 폭탄 공격 / ¶3 did not = 이중 국적이 아니었다 · His parents · him = 사크르 / ¶4 His case · he was concerned = 사크르 · this does not render = 시민권 박탈 / ¶5 they can presumably become = 외국 군대에 들어가 미국 시민권을 잃은 사람들 · no such ties = 특정 나라와의 연결.

> **한 줄 요약** 영국은 2005년부터 2021년 말까지 국가 안보를 이유로 175명의 시민권을 박탈했고 이중 국적이 없던 사크르는 무국적자가 되었는데, 미국과 견주면 외국 군대와 달리 테러 조직에는 특정 정부와의 연결이 없다는 차이가 드러난다.

7-4 쟁점과 반론, 저자의 답 — 증거 없는 박탈, 권리와 공공선의 균형 162쪽 ¶6 ~ 163쪽 ¶5

원문 위치 원서 162쪽 ¶6 ~ 163쪽 ¶5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62쪽 ¶6 첫 문장	The 1961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to which Britain is a signatory	연도 · 협약 — 어법 지문
▲	162쪽 ¶6 첫 문장	does allow countries to declare their citizens stateless if it is proved that	강조의 does · 가주어 it
◆	162쪽 ¶6 둘째 문장 ~ 163쪽 첫 줄	does not require any judicial or public proof even of the weaker claim	쟁점 — 증거 없는 박탈
▲	163쪽 첫 줄 (¶6 셋째 문장)	Should the person whose citizenship is revoked mount an appeal	If 생략 도치 · whose — 어법
▲	163쪽 첫 줄 (¶6 셋째 문장)	the evidence on which it has based its decision	전치사 + 관계대명사 — 어법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63쪽 첫 줄 (¶6 넷째 문장)	judges or tribunals will be unable to probe the evidence put before them	be unable to V — 어법
◆	163쪽 첫 줄 (¶6 다섯째 문장)	Another, more sinister possibility is deliberate abuse of these powers	더 나쁜 가능성 — 밑줄 의미
★	163쪽 ¶1 첫 문장	There is a strong case for an appeal system that allows for full and fair review	저자의 판단
◆	163쪽 ¶1 둘째 문장	But governments will respond that … could reveal intelligence sources and methods, thus jeopardizing national security	정부들의 반론 — 저자의 주장 아님
▲	163쪽 ¶2 첫 문장	one reason why a government may prefer this course to arresting and trying terrorism suspects	prefer A to B · 지칭 this course
★	163쪽 ¶2 둘째 문장	does not solve the problem of leaving at large a suspected terrorist	저자의 반박 — 박탈의 한계
★	163쪽 ¶3 첫 문장	the desirable balance between individu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citizenship, and the public good	더 큰 물음 — 요약문
★	163쪽 ¶4 첫 문장	similar to the London transport bombings, which killed 52 innocent people (the four bombers also died)	숫자 — 요약문 · 내용 일치
◆	163쪽 ¶4 둘째 문장	it is difficult to insist that individual rights are absolute	요약문 빈칸 (B)
★	163쪽 ¶5 첫 문장	it sets a precedent for authoritarian regimes … the poet and later Nobel laureate Joseph Brodsky	선례 · 인물 — 요지
★	163쪽 ¶5 둘째 문장	In the absence of global citizenship, it may be best to retain the principle that citizenship is not to be revoked without a judicial hearing	저자의 결론(may) — 요지

내용

영국이 서명한 1961년 무국적 감축에 관한 유엔 협약은, 시민이 '나라의 핵심 이익을 해치는' 일을 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그를 무국적자로 선언하는 것을 실제로 허용한다. 그러나 영국 법은 어떤 사람이 그 나라에 있는 것이 공공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더 약한 주장조차 사법적으로든 공개적으로든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람이

항소하더라도, 정부는 결정의 근거가 된 증거를 항소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 정부는 이런 사건에서 때때로 실수를 하기 마련인데, 판사나 재판소는 눈앞에 놓인 증거를 깊이 조사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하나의, 더 불길한 가능성은 이 권한을 일부러 남용해, 그 나라에 있는 것이 그저 불편할 뿐인 시민을 없애는 것이다. 저자는 시민권 박탈 결정을 충분하고 공정하게 재검토할 수 있는 항소 제도를 둘 강력한 근거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들은 테러 조직에 연루되었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증거를 공개하면 정보원과 정보 수집 방법이 드러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대응할 것이다. 공개적으로 아무 증거도 내놓지 않고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은, 정부가 테러 용의자를 체포해 재판하기보다 이 방법을 택할 만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시민권을 박탈하기만 해서는 테러 용의자를 잡지 않고 풀어 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사크르의 경우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는 한, 그 용의자는 다른 곳에서 공격을 저지를 수도 있다. 영국이 내놓은 법안이 던지는 더 큰 물음은, 시민권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개인의 권리와 공공선 사이의 바람직한 균형이다. 테러 활동 연루 혐의에 기대어 시민권을 박탈할 때 정부가 20번 가운데 19번 옳게 판단한다고 해 보자. 2013년 영국 정부가 내린 결정이 그러했다 해도, 무고한 귀화 시민 한 명이 무국적자가 되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높을 것이다. 그것은 중대한 불의다. 그런데 이번에는 테러 연루 혐의를 옳게 받은 19명이 영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 가운데 한 명이 무고한 52명의 목숨을 앗아 간(폭탄 공격범 네 명도 죽었다) 런던 교통망 폭탄 공격과 비슷한 테러를 저질렀다고 해 보자. 그런 잔학 행위 앞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절대적이라고 고집하기 어렵다. 무고한 한 사람이 부당하게 무국적자가 되는 것과 무고한 52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다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은가? 저자는 테러 공격이 끼치는 훨씬 큰 해악을 무시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민주 정부가 시민권을 박탈해 사람들을 무국적자로 만들기 시작하면, 반체제 인사를 추방해 없애려는 권위주의 정권에 선례를 남긴다. 옛 소련이 시인이자 뒷날 노벨상 수상자가 된 조지프 브로드스키를 비롯해 많은 사람에게 한 일이 그 예다. 저자는 세계 시민권이 없는 지금으로서는, 사법 심리 없이 시민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어법

- **The 1961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to which Britain is a signatory, does allow countries to declare their citizens stateless if it is proved that they have done something** : to which = be a signatory to의 to가 관계대명사 앞으로(계속적 용법). does allow = 강조의 조동사(협약도 허용은 한다). allow + O + to V. declare + O + 형용사 보어(stateless). if it is proved that = 가주어 it + 진주어 that절의 수동.
- **UK legislation does not require any judicial or public proof even of the weaker claim that someone's presence in the country is not conducive to the public good** : not ... any = 어떤 ~도 아니다. even of = ~에 대해서조차. that = 동격 접속사(the weaker claim의 내용). be conducive to = ~에 도움이 되다.
- **Should the person whose citizenship is revoked mount an appeal, the government is not required to disclose to the appellant the evidence on which it has based its decision.** : Should + 주어 + 원형 = If the person should mount ...(if를 생략한 도치). whose citizenship = 소유격 관계대명사. disclose 뒤 to the appellant가 먼저 오고 긴 목적어 the evidence ...가 뒤로 감. on which = base A on B의 on이 관계대명사 앞으로.
- **Though governments are bound to make mistakes from time to time in such cases, judges or tribunals will be unable to probe the evidence put before them.** : be bound to V = ~하기 마련이다. be unable to V = ~할 수 없다(be unable + -ing는 틀림). put before them = the evidence를 꾸미는 과거분사 후치(그들 앞에 제출된).
- **But governments will respond that to make the evidence available to a person believed to be involved with a terrorist organization could reveal intelligence sources and methods, thus jeopardizing national security.** : that절의 주어 = to부정사구(to make ... organization) → 동사 could reveal. make + O + 형용사(available). believed to be = a person을 꾸미는 과거분사 후치(~라고 여겨지는). thus + -ing = 그리하여 ~하다(결과의 분사구문).
- **The ability to revoke citizenship without presenting any evidence in public is one reason why a government may prefer this course to arresting and trying terrorism suspects.** : 주어 The ability(단수) → is. why = 관계부사(선행사 reason). prefer A to B = B보다 A를 택하다 — to가 전치사라 뒤에 동명사(arresting · trying 병렬).
- **If that were the case with the decisions made by the UK government in 2013, there would still be a high probability that an innocent naturalized citizen was made stateless.** : If + were, 주절 would + 원형 = 가정법

과거(사실과 다를 수 있는 가정). made by = decisions를 꾸미는 과거분사 후치. that = 동격 접속사(probability의 내용). was made stateless = make + O + 형용사의 수동.

- **Is it better to have one innocent person unjustly made stateless, or to have 52 innocent people killed and many others injured?** : 가주어 it + 진주어 to have …(두 개를 or로 견줌). have + O + p.p. = O가 ~을 당하게 되다(피해를 나타내는 have: made · killed · injured).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ignatory	서명국, 서명자	party	—
prejudicial	해로운, 불리한	harmful	beneficial
judicial	사법의, 재판의	legal	—
conducive	도움이 되는	favorable	detrimental
disclose	공개하다	reveal	conceal
appellant	항소인	—	respondent
tribunal	재판소	court	—
probe	깊이 조사하다	investigate	—
sinister	불길한, 사악한	ominous	benign
jeopardize	위태롭게 하다	endanger	protect
at large	잡히지 않은, 활보하는	free	captured
atrocity	잔학 행위	outrage	—
precedent	선례	example	—
dissident	반체제 인사	dissenter	loyalist

내용 일치 1961년 유엔 협약(영국 서명) = 나라의 핵심 이익을 해친 것이 '증명되면' 무국적 선언 허용 · 영국 법 = 더 약한 주장조차 사법적 · 공개적 증명을 요구하지 않음 · 항소해도 증거 공개 의무 없음 · 실수는 있기 마련인데 판사 · 재판소는 증거를 조사할 수 없음 · 더 불길한 가능성 = 고의적 남용(그저 불편한 시민 없애기) · 충분하고 공정한 재검토 = 강력한 근거(저자) · 증거 공개 → 정보원 · 방법 노출 · 국가 안보 위협(정부들의 대응) · 공개 증거 없이 박탈 가능 = 체포 · 재판보다 박탈을 택할 이유 하나 · 박탈만으로는 용의자를 풀어 둔 문제 그대로(사크르처럼 죽지 않는 한) · 더 큰 물음 = 개인의 권리와 공공선의 균형 · 20번 중 19번(가정) · 2013년 결정이 그렇다 해도 무고한 사람이 무국적자가 될 가능성 높음 = 중대한 불의 · 52명 사망(폭탄 공격범 4명도 사망) · 권리가 절대적이라고 고집하기 어려움 · 훨씬 큰 해악은 무시 못 함 · 그래도 권위주의 정권에 선례(옛 소련 · 브로드스키) · 세계 시민권이 없는 지금 = 재판 없는 박탈을 하지 않는 원칙이 최선일 '수도'(may). **밑줄 의미** more sinister possibility = 실수보다 나쁜 것, 곧 권한을 일부러 남용할 가능성 / leaving at large a suspected terrorist = 시민권만 빼앗고 용의자는 붙잡지 않은 채 둔다 / a grave injustice = 무고한 귀화 시민이 무국적자가 되는 일 / sets a precedent for authoritarian regimes = 민주 정부의 박탈이 반체제 인사 추방의 본보기가 된다 / 163쪽 ¶2 this course = 시민권 박탈 · ¶4 one carried out = 옳게 의심받은 19명 가운데 한 명 · ¶5 it sets = 시민권을 박탈하기 시작한 민주 정부.

> **한 줄 요약**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 박탈은 실수와 남용의 위험을 안고, 테러의 큰 해악 앞에서 권리가 절대적이라고 고집하기는 어렵지만, 저자는 민주 정부의 박탈이 권위주의 정권에 선례가 되므로 재판 없이 박탈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고 본다.

7-5 사례 — 프린스턴의 항의, 윌슨의 두 얼굴 168쪽 ¶1 ~ 169쪽 ¶2

원문 위치 원서 168쪽 ¶1 ~ 169쪽 ¶2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68쪽 ¶1 첫 문장	In the Fall of 2015 I was teaching Practical Ethics at Princeton University	연도 · 강의 — 내용 일치
▲	168쪽 ¶1 첫 문장	I was teaching … when, in the middle of the class, several students stood up and walked out	과거진행 + when(그때)
★	168쪽 ¶1 둘째 문장	the Black Justice League (BJL), one of many student groups that have emerged	단체 · 동격 — 어법(emerge)
▲	168쪽 ¶2 첫 문장	vowing not to leave until their demands were met	분사구문 · not ~ until · 수동
★	168쪽 ¶2 둘째 문장	"cultural competency training" … a requirement that students take classes on the history of marginalized people	요구 셋 — 가정법 현재
◆	168쪽 ¶2 셋째 문장	the demand that received national attention was for … to be renamed	전국의 주목 — 개명 요구
◆	168쪽 ¶2 다섯째 문장	Honoring Wilson, the League said, is offensive to Black students, because Wilson was a racist	연맹의 말 — 누구의 말인지
★	168쪽 ¶3 첫 문장	Wilson was a progressive in domestic affairs and an idealist in foreign policy	윌슨의 공적 — 지칭
▲	168쪽 ¶3 셋째 문장	he insisted that foreign policy be guided by moral values	insist that + (should) 원형
●	168쪽 ¶4 첫 문장	Yet his policies for Blacks were reactionary	어휘 반전: reactionary ↔ progressive
★	168쪽 ¶4 셋째 문장	racially segregated workplaces and washrooms, which had been abolished at the end of the Civil War, were re-introduced	사실 — 지칭 지문
◆	168쪽 ¶4 다섯째 문장	he told them that they should regard segregation as a benefit	지칭 them · regard A as B
★	168쪽 ¶5 첫 문장	the only one to receive the Nobel Peace Prize … he was Princeton's president	내용 불일치 후보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69쪽 첫 줄	"perhaps did more than anyone else to transform [Princeton] from a preppie gentlemen's preserve into a great research university"	슬로터의 말 · perhaps
★	169쪽 ¶1 셋째 문장	a Wilson Square in Warsaw … Prague's main train station … Prague and Bratislava	도시 — 서답형 함정
★	169쪽 ¶2 셋째~넷째 문장	the League of Nations … from 1920 until 1936 … Palais Wilson, in Geneva …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연도 · 기관 — 내용 불일치

내용

2015년 가을 저자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실천 윤리학 강의를 하던 중, 몇몇 학생이 수업 도중에 일어나 나갔다. 그들은 흑인 정의 연맹이 이끄는 항의에 수백 명의 다른 학생과 함께하려던 것이었다. 흑인 정의 연맹은 비무장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경찰에게 살해된 일들에 대응해 미국 곳곳에서 생겨난 많은 학생 단체 가운데 하나다. 그날 늦게 연맹 회원들은 크리스토퍼 아이스그루버 프린스턴 총장의 집무실을 점거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요구에는 교수와 직원 모두를 위한 '문화 역량 교육', 학생들이 소외된 사람들의 역사에 관한 수업을 듣도록 하는 규정, 그리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문화에 특별히 바쳐진 '문화 친화 공간'을 캠퍼스에 마련하는 일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전국의 주목을 받은 요구는 대학의 우드로 윌슨 공공 · 국제 문제 스쿨과 기숙 칼리지의 하나인 윌슨 칼리지의 이름을 바꾸라는 것이었다. 칼리지 식당에는 윌슨을 그린 커다란 벽화가 있는데, 연맹은 이것도 없애기를 원했다. 연맹은 윌슨이 인종차별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를 기리는 것이 흑인 학생들에게 모욕이 된다고 말했다. 윌슨은 국내 문제에서는 진보주의자, 외교 정책에서는 이상주의자였다. 그의 행정부는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노동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주었으며, 은행법을 개혁하고 독점에 맞섰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그는 외교 정책이 도덕적 가치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럽의 민주주의와 민족 자결을 옹호했다. 그러나 흑인에 대한 그의 정책은 반동적이었다. 1913년 미국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가 물려받은 연방 정부는 많은 흑인을 고용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몇몇은 백인과 나란히 중간 관리직에서 일했다. 그의 행정부 아래에서, 남북전쟁이 끝날 때 폐지되었던 인종 분리 일터와 화장실이 다시 생겼다. 흑인 관리자들은 더 하찮은 자리로 강등되었다. 흑인 대표단이 항의하자 그는 그들에게 분리를 혜택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프린스턴에서 윌슨의 이름이 두드러지는 것은, 그가 이 대학의 가장 유명한 동문 가운데 한 사람(노벨 평화상을 받은 유일한 동문)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되기 전에 프린스턴 총장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드로 윌슨 스쿨의 학장을 지낸 앤마리 슬로터의 말을 빌리면, 그는 프린스턴을 부유한 사립학교 출신 신사들만의 영역에서 위대한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바꾸는 데 '아마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다'. 윌슨은 제1차 세계대전을 끝낼 평화 조약의 바탕으로 제안한 '14개조'로 세계에 이름이 높다. 그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오스만 제국 민족들의 자치와 독립된 폴란드 국가를 요구했다. 그러니 바르샤바에 윌슨 광장이 있고, 프라하의 중앙역이 그의 이름을 따랐으며, 프라하와 브라티슬라바 두 곳에 윌슨 거리가 있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14개조의 다른 조항에는 공개 조약(다른 나라 영토를 전후에 나누어 가질 꾀를 꾸미는 비밀 조약을 맺지 않기)과 무역 장벽 완화 요구도 있다. 아마 가장 중대한 것은 크고 작은 나라 모두에 정치적 독립과 영토 보전을 서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들의 일반적 연합체'를 만들자는 제안일 것이다. 이 요구가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의 창설로 이어졌고, 국제연맹은 1920년부터 1936년까지 제네바의 팔레 윌슨에 본부를 두었다. 이 건물은 지금도 그 이름을 지니고 있으며, 오늘날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의 본부다.

어법

- **In the Fall of 2015 I was teaching Practical Ethics at Princeton University when, in the middle of the class, several students stood up and walked out.** : 과거진행(was teaching) + when절 = ~하고 있던 그때 …했다(when이 뒤에 와서 '그런데 그때'의 뜻). stood up과 walked out 병렬.
- **one of many student groups that have emerged across the United States in response to police killings of unarmed African Americans** : the Black Justice League와 동격인 명사구. one of + 복수 명사.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groups → 복수 have). emerge = 자동사라 수동(have been emerged)으로 쓸 수 없음. in response to = ~에 대응하여.
- **members of the BJL occupied the office of Princeton University President Christopher Eisgruber, vowing not to leave until their demands were met** : vowing = 동시 상황의 분사구문. vow + not to V(부정사의 부정은 not을 to 앞에). not ~ until = ~할 때까지 …하지 않다. were met = 수동(요구가 받아들여지다).
- **a requirement that students take classes on the history of marginalized people** : requirement that + 주어 + (should) 원형 — 요구 · 필요를 나타내는 명사 뒤 that절에서 원형 take(과거 문맥이어도 took가 아님). marginalized = 과거분사 전치(소외된).
- **But the demand that received national attention was for the university's Woodrow Wilson Schoo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and Wilson College, one of its residential colleges, to be renamed.** : 주어 the demand(단수) + 관계절 → was. for + 의미상 주어(the School … and Wilson College) + to be p.p.(이름이 바뀌는 것). one of its residential colleges = Wilson College와 동격.
- **In the aftermath of World War I, he insisted that foreign policy be guided by moral values** : insist that + (should) 원형 —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당위)일 때 원형 be. 사실을 주장할 때(~라고 우기다)는 직설법. be guided by = 수동.
- **Under his administration, racially segregated workplaces and washrooms, which had been abolished at the end of the Civil War, were re-introduced.** : 주어 workplaces and washrooms(복수) → were re-introduced(수동). which절 = 계속적 관계대명사, had been abolished = 과거완료 수동(다시 생기기 전에 이미 폐지되었던).
- **Wilson's name features prominently at Princeton not only because he is one of the university's most famous alumni (and the only one to receive the Nobel Peace Prize), but also because, before he was US president, he was Princeton's president.** : feature = (자동사) 두드러지게 나오다. not only because A but also because B. alumni = alumnus의 복수(동문). the only one to V = ~한 유일한 사람(to부정사 형용사적 용법).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unarmed	비무장의	defenseless	armed
occupy	점거하다	take over	vacate
vow	맹세하다	pledge	—
marginalized	소외된	excluded	—
affinity	친밀감, 유대	kinship	aversion
mural	벽화	wall painting	—
offensive	모욕적인, 불쾌한	insulting	inoffensive
progressive (n.)	진보주의자	reformer	conservative
monopoly	독점	—	competition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elf-determination	(민족) 자결	autonomy	—
reactionary	반동적인	regressive	progressive
segregated	분리된	separated	integrated
demote	강등하다	downgrade	promote
menial	하찮은, 천한	lowly	—

내용 일치 2015년 가을 · 실천 윤리학 강의 중 학생들이 나감 · 흑인 정의 연맹이 이끈 항의(수백 명) · 비무장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경찰에게 살해된 일에 대응해 생긴 많은 학생 단체 중 하나 · 그날 늦게 아이스그루버 총장 집무실 점거 · 요구 = 문화 역량 교육 · 소외된 사람들의 역사 수업 의무 · 문화 친화 공간 · 전국의 주목 = 윌슨 스쿨과 윌슨 칼리지의 이름 변경 · 식당 벽화 철거 · 윌슨은 인종차별주의자라 기리면 모욕(연맹의 말) · 국내 = 진보주의자(아동 노동 금지 · 노동자 권리 · 은행법 개혁 · 독점에 맞섬) · 외교 = 이상주의자(도덕적 가치 · 유럽의 민주주의와 민족 자결) · 흑인 정책 = 반동적 · 1913년 대통령 · 분리 일터 · 화장실 부활(남북전쟁 끝에 폐지됐던) · 흑인 관리자 강등 · 분리를 혜택으로 여기라 ·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유일한 동문 · 대통령 전에 프린스턴 총장 · 슬로터(전 학장) = '아마' 누구보다 · 14개조 · 바르샤바 윌슨 광장 · 프라하 중앙역 · 프라하와 브라티슬라바의 윌슨 거리 · 국제연맹 = 1920~1936 제네바 팔레 윌슨 · 지금 =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본부. **지칭** 168쪽 ¶1 They = 수업 중에 나간 학생들 / ¶2 their demands = 연맹 회원들 · which the BJL also wanted removed = 윌슨 벽화 · the League said = 흑인 정의 연맹 / ¶3 His administration · he insisted = 윌슨 / ¶4 some working = 연방 정부가 고용한 흑인 · them · they should regard = 항의한 흑인 대표단 / 169쪽 ¶1 He called · named after him = 윌슨 / ¶2 That call = 국가들의 일반적 연합체 제안 · The building = 팔레 윌슨.

> **한 줄 요약** 흑인 정의 연맹은 인종차별주의자인 윌슨을 기리는 것이 모욕이라며 이름 변경을 요구했고, 윌슨은 국내의 진보주의자이자 외교의 이상주의자로 프린스턴과 세계에서 기려지지만 흑인에 대한 정책은 반동적이었다.

7-6 쟁점과 저자의 답 — 변하는 상징, 지우지 말고 함께 기억하기 169쪽 ¶3 ~ 170쪽 ¶1

원문 위치 원서 169쪽 ¶3 ~ 170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69쪽 ¶3 첫 문장	History is full of deeply flawed people who did great things.	쟁점 제기 — 일반화
★	169쪽 ¶3 둘째 문장	George Washington, Thomas Jefferson, and James Madison	인물 — 서답형 함정
◆	169쪽 ¶3 셋째 문장	One might plead on their behalf that, in contrast to Wilson, they were at least no worse than the standards that prevailed in their time.	가능한 변호(might) — 저자의 주장 아님
★	169쪽 ¶3 넷째 문장	But is that sufficient grounds to continue commemorating them?	저자의 물음 — 판정 단정 금지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69쪽 ¶4 첫~둘째 문장	A New Orleans school board thought not … renamed George Washington Elementary School after a Black surgeon	도시 — 서답형
▲	169쪽 ¶4 둘째 문장	After adopting a resolution declaring that no school should be named after a slaveholder	after + -ing · name A after B
◆	169쪽 ¶4 셋째 문장	Should the name of the country's capital city be reconsidered, too?	열린 물음 — 답을 단정하지 말 것
◆	169쪽 ¶5 첫 문장	"political veils" gloss over a political system's historical details, creating an idealized visage	윙고의 개념 — 밑줄 의미
▲	169쪽 ¶5 둘째 문장	political leaders, who become symbolic vehicles for inculcating civic virtues	계속적 who · 통합 사고
★	169쪽 ¶6 첫 문장	the symbol can develop a different meaning	밑줄 의미 1순위
★	169쪽 ¶6 둘째 문장	in 1948, Rosa Parks's famous bus ride was still seven years away	연도 · 숫자 — 서답형
◆	169쪽 ¶6 넷째 문장	Wilson's racism therefore becomes more salient, and he ceases to embody the values	저자의 판단
★	169쪽 ¶7 첫 문장	for nearly five years … although a monument was erected outside the School acknowledging Wilson's racism	기간 · 기념물 — 주장 지문
▲	169쪽 ¶7 셋째 문장	It was not until 2020, after the very public police murder of George Floyd, that Princeton University acknowledged	It was not until ~ that 강조
★	170쪽 ¶1 첫~둘째 문장	cannot and should not be erased from history … a nuanced conversation about changing values	저자의 결론 — 주장

내용

역사에는 큰일을 했지만 깊은 결함을 지닌 사람들이 가득하다. 미국에서는 노예를 소유했던 건국의 아버지들과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제임스 매디슨 같은 초기 대통령들만 보아도 된다. 그들을 위해, 윌슨과 달리 그들은 적어도 자기 시대에 널리 받아들여진 기준보다 나쁘지는 않았다고 변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그것이 그들을 계속 기릴 충분한 근거가 되느냐고 묻는다. 뉴올리언스의 한 교육위원회는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어떤 학교도 노예 소유주의 이름을 따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채택한 뒤, 조지 워싱턴 초등학교의 이름을 수혈에서의 인종 분리 철폐를 위해 싸운 흑인 외과 의사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저자는 수도 이름도 다시 생각해야 하느냐고 묻는다. 아주메 윙고는 책 『Veil Politics in Liberal Democratic States』에서 '정치적 베일'이 한 정치 체제의 역사적 세부를 덮어 이상화된 얼굴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설명한다. 위대한(또는 그리 위대하지 않은)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 그들은 시민의 덕을 심어 주는 상징의 수단이 된다. 그러나 우리의 도덕 기준이 바뀌면 그 역사적 인물의 다른 면모가 더 중요해지고, 상징은 다른 의미를 띨 수 있다. 1948년 프린스턴의 공공 · 국제 문제 스쿨에 윌슨의 이름이 붙었을 때, 로자 파크스의 유명한 버스 승차는 아직 7년 뒤의 일이었고, 미국 남부의 인종 분리는 심각한 도전을 받지 않았다. 지금 그런 분리는 상상할 수도 없다. 그래서 윌슨의 인종차별은 더 두드러지고, 그는 오늘날 프린스턴 대학에 중요한 가치를 더는 구현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흑인 정의 연맹의 항의 뒤 5년 가까이 윌슨 칼리지와 우드로 윌슨 공공 · 국제 문제 스쿨은 이름을 그대로 지녔다. 다만 스쿨 바깥에 윌슨의 인종차별을 인정하는 기념물이 세워졌다. 프린스턴 대학이 윌슨의 인종 분리 정책 때문에 공공 · 국제 문제 스쿨에 그의 이름을 붙여 두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것은, 모두가 지켜본 경찰의 조지 플로이드 살해 뒤인 2020년이 되어서였다. 대학은 칼리지에서도 그의 이름을 뺐다. 저자는 대학과 미국과 세계에 대한 윌슨의 공헌은 역사에서 지워질 수도 없고 지워져서도 안 된다고 말한다. 오히려 바뀌는 가치에 관한 섬세한 대화를 낳고, 그의 긍정적 업적과 미국의 인종차별적 정책 · 관행에 그가 보탠 몫을 함께 담는 방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프린스턴에서 그 대화가 낳을 결과 하나는, 그렇지 않으면 대학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 지닌 복잡성을 모르고 지날 학생과 교수들을 교육하는 일이어야 한다.

어법

- **History is full of deeply flawed people who did great things.** : be full of = ~으로 가득하다. who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people). deeply flawed = 부사 + 과거분사(깊은 결함이 있는).
- **In the United States, we have only to look at slave-owning Founding Fathers and early presidents like George Washington, Thomas Jefferson, and James Madison.** : have only to V = ~하기만 하면 된다. slave-owning = 명사 + 현재분사의 복합 형용사(노예를 소유한).
- **One might plead on their behalf that, in contrast to Wilson, they were at least no worse than the standards that prevailed in their time.** : might = ~할 수도 있다(가능한 변호 — 저자의 주장 아님). plead that = ~라고 변호하다. on their behalf = 그들을 위해. no worse than = ~보다 조금도 나쁘지 않은. that prevailed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the standards).
- **After adopting a resolution declaring that no school should be named after a slaveholder, it renamed George Washington Elementary School after a Black surgeon who fought for desegregation of blood transfusions.** : after + 동명사(adopting). declaring = a resolution을 꾸미는 현재분사 후치. name A after B = B의 이름을 따서 A라고 이름 짓다(rename A after B). it = 뉴올리언스 교육위원회.
- **Ajume Wingo describes how "political veils" gloss over a political system's historical details, creating an idealized visage.** : describe의 목적어 = how 간접의문문(how + S + V). gloss over = 얼버무려 덮다. creating = 결과의 분사구문(그 결과 ~을 만든다). idealized = 과거분사 전치.
- **Wilson's racism therefore becomes more salient, and he ceases to embody the values that are important to Princeton University today.** : therefore = 앞 문장(분리가 이제 상상할 수 없음)의 결과. cease to V = ~하기를 그치다.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the values → 복수 are).
- **It was not until 2020, after the very public police murder of George Floyd, that Princeton University acknowledged that his segregationist policies made it inappropriate to have a Schoo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named after him.** : It was not until A that B = A가 되어서야 비로소 B했다(강조 구문). make + 가목적어 it + 형용사 + 진목적어 to V. have + O + p.p.(named) = O가 ~되게 하다.
- **They should, instead, be recognized in a manner that creates a nuanced conversation about changing values, and includes both his positive achievements and his contribution to America's racist policies and practices.** : should be p.p. = 조동사 수동(They = 윌슨의 공헌).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a manner) → creates와 includes 병렬. both A and B.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flawed	결함이 있는	imperfect	flawless
plead	변호하다, 주장하다	argue	—
prevail	널리 퍼지다, 우세하다	predominate	—
commemorate	기리다, 기념하다	honor	—
slaveholder	노예 소유주	slave owner	—
desegregation	인종 분리 철폐	integration	segregation
gloss over	얼버무리다, 덮어 감추다	cover up	expose
visage	얼굴, 모습	face	—
inculcate	(생각을) 심어 주다	instill	—
salient	두드러진	prominent	inconspicuous
embody	구현하다	represent	—
erect	세우다	build	demolish
nuanced	섬세한, 미묘한 차이를 살린	subtle	simplistic

내용 일치 역사에는 큰일을 한 깊은 결함의 인물이 가득 · 노예를 소유한 건국의 아버지들 · 워싱턴 · 제퍼슨 · 매디슨 · 그들은 적어도 시대 기준보다 나쁘지 않았다고 변호할 '수도'(might — 저자의 주장 아님) · 계속 기릴 충분한 근거인가(저자의 물음) · 뉴올리언스 교육위원회 = 아니라고 봄 · 노예 소유주 이름 금지 결의 · 조지 워싱턴 초등학교 → 수혈의 인종 분리 철폐를 위해 싸운 흑인 외과 의사 · 수도 이름도?(열린 물음) · 윙고 = 정치적 베일이 역사적 세부를 덮어 이상화된 얼굴 · 지도자 = 시민의 덕을 심는 상징 · 도덕 기준이 바뀌면 다른 면모가 중요 · 상징이 다른 의미를 띨 '수' 있음 · 1948년 이름이 붙음 · 로자 파크스는 7년 뒤 · 남부의 분리에 심각한 도전 없었음 · 지금은 상상 불가 · 인종차별이 더 두드러짐 · 오늘의 가치를 구현 못 함(저자) · 항의 뒤 5년 가까이 이름 유지 · 인종차별을 인정하는 기념물 · 2020년 플로이드 살해 뒤에야 스쿨 이름이 부적절하다고 인정 · 칼리지에서도 이름 뺌 · 공헌은 지울 수도 지워서도 안 됨 · 업적과 인종차별 정책 · 관행에 보탠 몫을 함께 · 복잡성을 모를 학생 · 교수 교육(저자). **밑줄 의미** political veils = 체제의 역사적 세부를 덮어 이상화된 얼굴만 보이게 하는 장치(윙고) / the symbol can develop a different meaning = 도덕 기준이 바뀌면 기리는 인물이 상징하는 바도 달라진다 / he ceases to embody the values = 윌슨이 오늘의 프린스턴이 중시하는 가치를 더는 대표하지 못한다 / a nuanced conversation about changing values = 업적과 인종차별을 함께 다루며 가치의 변화를 이야기하기 / 169쪽 ¶3 they = 건국의 아버지들과 초기 대통령들 · ¶4 it renamed = 뉴올리언스 교육위원회 · ¶6 Now it is unthinkable의 it = 남부의 인종 분리 · 170쪽 첫 줄 It also removed = 프린스턴 대학 · ¶1 They = 윌슨의 공헌.

> **한 줄 요약** 도덕 기준이 바뀌면 기리는 인물의 상징도 다른 의미를 띠어 윌슨의 인종차별이 두드러지게 되었고, 저자는 그의 공헌을 지우지 말고 업적과 인종차별을 함께 담는 섬세한 대화 속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thics in the Real World [Vol. 7 CITIZENS]

범위	Why Vote? · Is Citizenship a Right? · Should We Honor Racists? (원서 PDF 160~170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For almost five years after the protests, Princeton kept Wilson's name, though a monument recognizing his racism went up outside his School. Only in 2020, after George Floyd was killed by police in full public view, did the university decide that Wilson's segregationist record made the School's name unacceptable, and it took his name off the college as well. Even so, what Wilson did for the university, the nation, and the world should not be wiped out of history. It should be remembered through a nuanced discussion of shifting values that covers both his real achievements and his part in America's racist policies.

① Princeton should have kept Wilson's name.
② Racist leaders should be erased from history.
③ Wilson should be remembered for both his achievements and his racism.
④ Students should choose the names a university honors.
⑤ Monuments work better than renaming buildings.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Most people who have lost British citizenship had a second nationality to fall back on. Mohamed Sakr did not. Although his parents had moved to Britain from Egypt, he held no Egyptian citizenship, so when the UK government took away his British citizenship, it left him a citizen of no country at all. Sakr, who was then living in Somalia, challenged the decision from there, and his chances looked good: in a separate case, the UK Supreme Court later ruled that the government has no power to leave anyone stateless. Yet Sakr dropped his appeal, apparently fearing that his cell phone was giving away his location to American intelligence. Some months afterward, still in Somalia, he died in a US drone strike. Britain then changed its law, requiring the Home Secretary to have reasonable grounds for believing that a person losing citizenship will not end up stateless.

① A Citizen of Nowhere: The Case of Mohamed Sakr
② How Dual Nationality Protects Terror Suspects
③ Why the Supreme Court Sided with the Government
④ Somalia: A Safe Haven for British Exiles
⑤ The Rise of Drone Warfare in Africa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far greater harm that a terrorist attack would cause is not something we can brush aside. Still, the author warns, once a democratic government begins stripping people of their citizenship and leaving them stateless, it hands a precedent to authoritarian regimes. Such regimes are eager to get rid of dissidents by driving them out of the country, just as the Soviet Union once expelled the poet Joseph Brodsky, who would later win the Nobel Prize, along with many others. As long as there is no such thing as global citizenship, the author concludes, the wisest course may be to hold on to one simple rule: nobody should lose citizenship unless a court has first given the case a hearing.

① Terrorist attacks are so harmful that governments must revoke suspects' citizenship.
② It may be best for democracies to keep the rule that no one loses citizenship without a judicial hearing.
③ Global citizenship should replace national citizenship as soon as possible.
④ Poets and other dissidents deserve special protection from expulsion.
⑤ Only authoritarian regimes have ever revoked citizenship.

4. 밑줄 친 get a free rid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Nobody who values self-government wants a tiny minority to pick the people who rule, so all of us have reason to hope for a high turnout. The trouble is that a single ballot adds almost nothing to the final count. This is exactly why each of us is tempted to get a free ride. We can stay at home and save ourselves the bother, while counting on enough other citizens to go to the polls to keep democracy strong and to put in place a government that responds to what most people think. The smaller the effect of any one vote, the stronger this temptation becomes.

① to vote for the party that is most likely to win
② to let compulsory voting laws decide for us
③ to cheer for one's own side like a football fan
④ to travel abroad on election day to avoid a fine
⑤ to enjoy the benefits of others' voting without voting oneself

5. 밑줄 친 the symbol can develop a different meaning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Ajume Wingo explains how 'political veils' cover up the historical details of a political system and present an idealized face. Political leaders receive the same treatment and become symbols used to teach civic virtues. Yet as moral standards change, other traits of the historical figure come to matter more; as a result, the symbol can develop a different meaning. In 1948, when Princeton gave Wilson's name to one of its schools, Rosa Parks's well-known bus ride lay seven years in the future, and segregation in the South faced no serious challenge. Today such segregation is unthinkable. So Wilson's racism now stands out more, and he no longer embodies the values Princeton holds important.

① Wilson's name will lose all meaning once the protesting students graduate.
② Symbols of past leaders should be redesigned by every generation.
③ Political veils reveal the hidden truth about a nation's leaders.
④ What an honored figure stands for can shift as moral standards change.
⑤ Wilson's achievements were exaggerated when his name was added in 1948.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Wilson was a progressive at home and an idealist abroad. ① His administration outlawed child labor, gave workers new rights, reformed the banking laws, and took on monopolies, and after World War I ② he demanded that moral values steer foreign policy. Toward Black Americans, however, ③ his policies were reactionary. The federal government Wilson inherited on becoming president in 1913 employed many Black people, and some of ④ them held mid-level management posts alongside white colleagues. Under his administration, the segregation of workplaces and washrooms, ended after the Civil War, returned, and Black managers were moved down to more menial jobs. When a delegation of Black citizens protested, ⑤ he told them to view segregation as a benefit.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Ever since he turned 18, the author, an Australian citizen, has cast a ballot in every federal election, which is typical. In most of Australia's federal elections, turnout among registered voters reaches at least 95%. The contrast with the United States is striking: there, the 62% turnout recorded in 2020 was the best since 1960, and in the congressional elections held midway through a president's term, under 40% of Americans entitled to vote usually do so. Back in the 1920s, after turnout dropped under 60%, Parliament made voting a legal duty, and no government since has seriously tried to scrap the law, which about 70% of Australians support, according to polls. Nonvoters receive a letter asking for an explanation, and those with no good excuse pay a small fine, though fewer than 1% of those eligible end up being fined.

① 오스트레일리아 의회는 투표율이 60% 아래로 떨어진 1920년대에 투표를 의무로 만들었다.
② 미국의 2020년 투표율 62%는 1960년 이후 가장 낮았다.
③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의 약 70%가 의무 투표법의 폐지를 원한다.
④ 미국에서 대통령 임기 중간의 의회 선거에는 대개 투표 자격자의 절반 넘게 투표한다.
⑤ 벌금을 내는 사람은 투표 자격이 있는 사람의 10%가 넘는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Wilson's name is everywhere at Princeton, partly because he is among its most famous graduates and its sole winner of the Nobel Peace Prize, and partly because he headed Princeton before becoming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ne-Marie Slaughter, once dean of the Wilson School, has said that he may have done more than anybody to make Princeton a great research university instead of a preserve for preppy gentlemen. Around the world, Wilson is known for his Fourteen Points, offered as a framework for the peace treaty that would close World War I. They demanded self-rule for peoples under Austro-Hungarian and Ottoman rule and a Polish state of its own, which is why Warsaw has a Wilson Square and Prague's main station bears his name. Another point proposed a general association of nations, which led to the League of Nations. From 1920 to 1936 the League was based in Geneva's Palais Wilson, which today houses the headquarters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① 윌슨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유일한 프린스턴 동문이다.
② 윌슨은 미국 대통령이 되기 전에 프린스턴의 총장이었다.
③ 14개조에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오스만 제국 민족들의 자치 요구가 들어 있었다.
④ 국제연맹은 1920년부터 1936년까지 제네바의 팔레 윌슨에 본부를 두었다.
⑤ 팔레 윌슨은 지금 국제연맹의 후신인 유엔의 본부로 쓰인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The UN's 1961 convention on reducing statelessness, ① which Britain has signed, does let a country make its citizens stateless once it has been proved that they acted against the country's vital interests. British law, however, asks for no judicial or public proof, not even for the weaker claim that a person's presence in Britain does not serve the public good. If someone whose citizenship ② has revoked appeals, the government need not reveal to that person the evidence ③ on which its decision rests. Governments will inevitably make mistakes in some of these cases, and yet judges and tribunals will be unable ④ to examine the evidence placed before them. Worse still, these powers might ⑤ be abused deliberately to get rid of citizens who are merely inconvenient.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n the fall of 2015, in the middle of the author's Practical Ethics class at Princeton, several students rose from their seats and left the room. They were joining a protest by the Black Justice League, one of a wave of student organizations (A) [that have emerged / that have been emerged] nationwide after unarmed African Americans were killed by police. Later that day, League members took over the office of Christopher Eisgruber, Princeton's president, vowing to stay until their demands (B) [were met / met]. One demand was a rule that every student (C) [take / took] courses on marginalized people's history; another was that Wilson's name be removed from a school and a college.

	(A)	(B)	(C)
①	that have been emerged	were met	take
②	that have emerged	met	took
③	that have emerged	were met	take
④	that have been emerged	met	take
⑤	that have emerged	were met	took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In practice, the law does not ① require anyone to cast a valid vote. What it requires is turning up at the polling place, having your name checked off, and dropping a ballot paper into the box. Because the ballot is ② secret, nobody can stop voters from leaving their papers blank or even scrawling obscenities on them. Invalid votes are somewhat more ③ common where voting is compulsory, but they come nowhere close to ④ doubling the gap in turnout between compulsory and voluntary systems. Nor is Australia ⑤ alone in this: Belgium and Argentina adopted compulsory voting before it did, and it is also used in many other countries, Latin American ones in particular, though penalties and enforcement differ from place to place.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The author voted even during years spent in America, where nothing forced him to, and his party preferences cannot explain the effort either, because his single ballot was never likely to tip the result. Here lies a puzzle. If voting is optional and one vote almost never decides anything, then a few minutes' walk and a short queue can seem a cost not worth paying, and a sensible person might simply stay home. But imagine what happens when large numbers of people draw this conclusion together: _____.

① each remaining ballot will carry even less weight
② the few who still vote may end up choosing the government for an unhappy majority
③ the cost of voting will fall
④ compulsory voting will be introduced
⑤ the result will mirror the majority's wishes even more closely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One important difference, however, is that someone who loses US citizenship by joining another nation's military can presumably become a citizen of the country they fight for.

In the United States, the grounds for taking away citizenship are narrow. (①) They include fraud in a citizenship application and service in a foreign army. (②) It can be argued that joining a terrorist group hostile to America is even worse than enlisting in a foreign army. (③) After all, terrorist groups are more likely to make civilians their targets. (④) Terrorist organizations, by contrast, usually have no comparable link to any particular government. (⑤)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Still, people vote for many possible reasons. ① Some simply enjoy voting and would have no better use for the time if they stayed home. ② Others feel it is their civic duty, and they do not judge whether voting is rational by asking what effect a single ballot might have. ③ Before the 2005 bombings of London's transport system, Britain had rarely used its power to strip people of citizenship. ④ Still others vote to cheer on their side, like football fans, or to keep the right to complain about whatever government wins. ⑤ If such motives fail, compulsory voting offers one way around the free-rider problem, since a small cost for not voting makes voting rational for everyone.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re are plenty of real cases in which a minority has decided a country's future. In Poland's 2005 national elections, barely 40% of eligible citizens voted, the lowest figure since free elections began after the communist era.

(A) Turnout climbed to almost 54%, with the biggest rise among young voters and those with more education, and Kaczyński's government went down to a heavy defeat.

(B) Two years later, when Poles had to vote again, it became clear that many who had stayed home in 2005 were dissatisfied with how things had turned out.

(C) Consequently, Jarosław Kaczyński became prime minister on the strength of just six million votes, at a time when 30 million people were entitled to vote, backed by a coalition holding most of the seats in Parliament.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Britain's proposed law raises a bigger question: how to weigh individual rights against the public good. Imagine that when the government strips people of citizenship on suspicion of terrorist involvement, it is correct 19 times out of 20. If that were true of the UK government's decisions in 2013, it would still be quite likely that one innocent naturalized citizen had been left stateless, a grave injustice. But now imagine that the 19 rightly suspected people could return to Britain and that one of them carried out an attack like the 2005 bombings of London's transport system, in which 52 innocent people died. Faced with such atrocities, it is hard to go on claiming that individual rights must be treated as absolute.

→ Even a government that is (A) _____ most of the time may leave an innocent person stateless, yet the prospect of an attack that kills dozens makes it difficult to regard individual rights as (B) _____.

① right ..... absolute
② wrong ..... absolute
③ right ..... negotiable
④ wrong ..... negotiable
⑤ careless ..... unimportant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At least 95% of registered voters usually turn out for Australia's federal elections, largely because Parliament made voting compulsory in the 1920s. In Britain, the government has been legally able to take citizenship away from naturalized citizens since 1918, but it rarely did so until the London bombings of 2005; by the end of 2021, 175 people had lost their citizenship on security grounds. At Princeton, Woodrow Wilson's name was given to a school in 1948, when segregation in the South of the United States was not yet facing any serious challenge. Elsewhere, a school board in New Orleans gave George Washington Elementary School a new name, honoring a Black surgeon.

<QUIZ>

(1) What share of registered voters usually turns out for Australia's federal elections?

Answer for (1): _____

(2) In which decade did Australia's Parliament make voting compulsory?

Answer for (2): _____

(3) Since what year has the British government been able to take away naturalized citizens' citizenship?

Answer for (3): _____

(4) How many people had lost British citizenship on security grounds by the end of 2021?

Answer for (4): _____

(5) In what year was Wilson's name given to the school at Princeton?

Answer for (5): _____

(6) Is it true or false that segregation in the South faced serious challenge when Wilson's name was given to the school?

Answer for (6): _____

(7) In which city did a school board rename George Washington Elementary School?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2013	N. Princeton
B. True	O. 19
C. False	P. 1961
D. Geneva	Q. 2015
E. New Orleans	R. the 1960s
F. 70%	S. 1918
G. 2020	T. 175
H. 52	U. the 1920s
I. 1948	V. six million
J. at least 95%	W. Washington
K. Warsaw	X. 2005
L. 1913	Y. 62%
M. fewer than 40%	Z. Bratislava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오스트레일리아 시민으로서 나는 열여덟 살이 된 뒤로 모든 연방 선거에서 투표해 왔다. (as(자격) / 현재완료 + since)

02 많은 사람이 투표하지 않으면, 인구의 소수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여 불만을 품은 다수를 남길 수 있다. (결과의 분사구문 leaving)

03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투표해 주기를 바라면서 무임승차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each of us + 단수 동사 / while + -ing)

04 낮은 투표율을 걱정하는 나라들은 오스트레일리아 모델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과거분사 후치 / would do well to V)

05 시민권을 박탈함으로써 영국 정부는 그를 무국적자로 만들었다. (by + -ing / strip A of B / make + O + 형용사)

06 미국에 적대적인 테러 조직에 가담하는 것은 외국 군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Arguably / 동명사 주어 / even + 비교급)

07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람이 항소한다면, 정부는 결정의 근거가 된 증거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 (If 생략 도치(Should + S + 원형) / 전치사 + 관계대명사)

08 세계 시민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법 심리 없이 시민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 (가주어 it / 동격 that / be to V(의무))

09 그는 외교 정책이 도덕적 가치에 따라 이끌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insist that + (should) 원형 / 수동)

10 그들을 위해, 그들이 적어도 자기 시대에 널리 퍼진 기준보다 나쁘지는 않았다고 변호할 수도 있을 것이다. (might(가능성) / no worse than / 관계대명사 that)

11 2020년이 되어서야 프린스턴 대학은 그의 인종 분리 정책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딴 스쿨을 두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했다. (It was not until ~ that / make + it + 형용사 + to V / have + O + p.p.)

12 윌슨의 공헌은 역사에서 지워질 수도 없고 지워져서도 안 된다. (조동사 + 수동(cannot and should not be p.p.))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선거의 투표율 / 저자가 투표를 시작한 나이	
미국 2020년 투표율 / 임기 중간의 의회 선거 투표율	
의무 투표가 생긴 때 · 그때의 투표율 / 지지율 / 벌금 대상	
오스트레일리아보다 먼저 의무 투표를 도입한 나라	
폴란드 2005년 투표율 / 2년 뒤 투표율	
총리가 된 사람 / 그쪽이 받은 표 · 투표 자격자 수	
영국이 박탈 권한을 가진 해 / 박탈이 잦아진 시점(그 전까지는 거의 안 씀)	
2021년 말까지 박탈된 사람 수	
시민권을 '특권'이라 한 사람 · 직책	
사크르의 부모가 온 나라 / 그가 살던 곳	
미국의 시민권 박탈 사유 둘	
무국적 감축에 관한 유엔 협약의 해	
가정한 정부의 정확도 / 런던 공격의 희생자	
옛 소련이 추방한 시인	
항의가 일어난 때 · 강의 / 항의를 이끈 단체	

항목	답
윌슨이 대통령이 된 해 / 프린스턴에서의 직책	
국제연맹 본부(기간 · 건물)	
조지 워싱턴 초등학교의 이름을 바꾼 곳	
윌슨의 이름이 스쿨에 붙은 해 / 이름을 뺀 해	

4-3. 통합 사고 문제 — 세 편을 잇는 자리

문제

「Why Vote?」에서 저자는 자기 한 표가 결과에 보태는 몫이 아주 작아 우리 각자가 무임승차의 유혹을 받는다고 짚었다. 아래 빈칸 문장은 그 대목이다. 다른 두 편에도 이 낱말(또는 그 형용사형)과 이어지는 대목이 있다. 빈칸에 들어갈 영어 한 단어를 쓰고, 그 근거를 「Is Citizenship a Right?」와 「Should We Honor Racists?」에서 하나씩 찾아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해당 편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시민이 함께 지키는 것: Yet since our own vote makes such a tiny contribution to the outcome, each of us still faces the temptation to get a free ride, not bothering to vote while hoping that enough other people will vote to keep _____ robust and to elect a government that is responsive to the views of a majority of citizens.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